

2017-10

기본연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문순덕 · 김연진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기본연구 2017-10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문순덕 · 김연진

발 간 사

현정부 들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반가운 일임을 인지하며, 더불어 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문화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문화의 진흥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에 앞서 제주도에서는 지역·세대·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도민들이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는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 문화정책 진흥 방안을 모색해 보고,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문화인프라 구축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므로 예술가의 창작 여건을 보장해 준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운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 기획자 제도 운영, 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지정, 제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의 지속화 방안 마련, 레지던스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 운영, 창작공간 운영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예술가의 지역 정착 강요정책 추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은 창작공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역할, 창작공간 운영 경비 지원 방안 모색, 매개인력 중심의 운영 체제 유지, 예술가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작공간의 역할 기대, 예술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예술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창작공간 운영 등 다양한 목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창작공간 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행정기관은 물론 예술가들이 향후 창작공간을 운영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에 응해주신 전문가, 지역 주민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

제주연구원 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1.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빈집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었고, 제주지역에서도 4년간(2011~2014) 추진됨.
- 이 외에도 제주시에서는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을 추진하였으며(제주시 삼도2동 구 제주대학교병원 일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로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시도하였음.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은 빈집프로젝트,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예술인 입주점포 등과 같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레지던스 유형별 운영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예술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고,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는 물론 이 공간 소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가의 역할,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는 행정기관의 지원사업 대상 창작공간에 한정함.
 - －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은 4년간(2011~2014) 5개의 창작공간이 선정·지원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아트창고(2011), 공연창작스튜디오페이스(2012), 제주아트프로젝트(2013), 재주도좋아(2013), 아테우리(2014) 등임.

- 예술인 입주점포 지원사업(2014~2017)에 따른 입주 작가는 2017년 기준 13팀에 16명임.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5곳으로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공예공방,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예술가 대상 창작공간, 예술공간 이아창작센터, 우도 창작스튜디오 등이 있음.
 - 마을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3곳으로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문화공간 양, 서귀포문화빔데리충전소 등이 있음.
- 시간적 범위는 창작공간 지원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해당됨.

○ 방법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운영 현황 조사
- 창작공간 관계자(운영자, 기획자 등) 심층면접조사
- 지역 주민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3) 연구 의의와 한계점

- 일반적으로 창작공간이라고 하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장소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빈집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공간과 예술인 입주점포 사업으로 선정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점검해 보는데 의의를 두었음.
- 이 연구는 행정기관에서 진행한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며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다루지 못하였음.
- 따라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성격상 전문 기획자 역할, 운영기간의 지속 가능성, 행정기관의 요구 및 기대, 입주 예술가들의 요구 및

기대 등 행정기관, 예술가, 지역 주민 각자의 입장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음.

- 이 연구 결과 행정기관에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술가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하여 공유와 교류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총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더불어 제주 도민들의 인식과 기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2.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사례분석 결과

1) 창작공간의 개념 정의

- 창작공간이란 용어는 2009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여러 장르와 분야를 포괄하는 공간을 가리킴.
 - 현재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공간,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공존 가능한 공간, 예술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공간 등 종합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함.
 - 또한 예술 작업실, 스튜디오, 공방, 연습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통칭할 필요가 있을 때,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창작공간’이란 용어를 사용함.

2) 창작공간 사례 분석 결과

- 빈집프로젝트사업(2011~2014)은 창작공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후 5년 동안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운영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조건임.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단순히 개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므로,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함.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구 제주대학교병원 이전으로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 제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13곳에 16명의 작가가 입주하였으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입주 자격을 주고, 그간의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음.
-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에 위치하며, 입주 작가들은 도내, 국내, 국외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0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
 -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역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시는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에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완공하고 입주 작가를 지원하는 레지던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창작스튜디오에는 총 49명의 예술가가 입주했으며, 입주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으며, 입주 작가는 기간 만료 후에 작품 1점을 기증하고, 입주 작가 기획전에 1회 참가해야 함.
- 예술공간 이아는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작가 레지던스와 전시장, 연습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지역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국내 작가 8팀, 국외 작가 3팀(분기별 순차적으로 입주함) 등 11팀이 입주해 있음.

- 우도 창작스튜디오(제주시 우도면)는 2012년 개관하여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 여건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4명의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음.
 - － 우도면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향후 입주 기간, 입주 후 조건 등 운영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
- 가시리(서귀포시 표선면 소재)는 2010년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20억원을 지원받아서 목축문화박물관, 가시리문화센터, 예술인 창작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시설을 보유하게 됨.
 - － 가시리 창작지원센터(2011년 8월 개관)는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작업실 4동과 공동 취사시설 1동, 목공 작업장 1동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스 공간으로 개관되었는데,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문화공간 양(제주시 화북동 소재 : 김범진 대표)은 2013년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 등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서귀포문화빔데리충전소(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 김백기 대표)는 2014년 12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창작 및 매개공간, 커뮤니티 브릿지 역할, 문화예술 행복 충전소, 아트팩토리, 글로컬문화예술도시의 핵심 동력 제공, 미래형 일자리 창출 전략기획공간 등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사회참여 태도에 따라 개인적인 작업에 그치거나,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등에 변화가 있었음.
- 제주지역에서 추진된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예술을 매개로 하여 도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예술 생활화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추진된 빈집프로젝트사업,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등 행정기관의 지원사업에 따른 창작공간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지원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효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3.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1)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결과

- 창작공간 소재 관련지역 주민 202명을 대상으로 창작공간 인식과 관련한 내용, 창작공간 이용 경험과 관련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문화시설로서 창작공간의 역할 확대
 - 행정과 주민의 협치를 통한 창작공간 운영 강조
 - 창작공간에 대한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공존
 - 창작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중요성 및 지역문화 향상

2) 전문가조사 결과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자, 관련 분야 전문가, 공공 문화시설 담당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 ‘창작공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창작공간 운영 경비 지원 방안 모색, 매개인력 중심의 운영 체제 유지, 예술가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작공간의 역할 기대, 예술가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예술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창작공간 운영’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음.
- 이에 따라 전문가조사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은 운영 주체와 사업 목적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
 - 향후 예술가들이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공모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 만족도 정도, 기획자의 의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있는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매개인력을 배치하여 중간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4.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전문 기획자 제도 운영 활성화

-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획과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때 전문 기획자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공공예술 등 각각의 예술 장르에 합당해야 하므로 각 장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야 함.

2) 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 예술가가 창작공간의 운영자 겸 기획자 역할을 할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다 보면 개인의 창작 활동은 포기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창작공간은 한 지역에서 최소한 3년 이상 활동해야 지역 주민들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기획자)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또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3)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지정

- 문화예술의 거리는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많지 않아서 입주 작가들

이 지역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향후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등과 같이 집적화된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는 전문 기획자와 같은 총괄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특정 창작공간에 정보교류센터 역할을 부여하여 예술가와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함.

4) 제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 제주지역에 있는 마을 체육관, 학교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함.
- 문화(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유휴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체육관이 운영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 청년, 도민 등 다양한 공연 장르의 예술가(아마추어 포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함.

5)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의 지속화 방안 마련

- 빈집프로젝트사업이나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제주시 삼도2동)은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는 초기 단계에 해당되므로, 5년이라는 지원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이 공간 운영자들이 지정된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따라서 창작공간 입주 작가들은 자신들이 그 공간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레지던스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 운영

- 일반적으로 레지던스사업을 진행할 때 예술가의 연령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도 있으므로, 제주지역에 있는 창작공간 (창작센터 포함)들이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함.

- 창작공간의 위치에 따라 입주 작가의 대상(신진작가, 중견작가 등)을 고려하여 입주 기회를 주고, 가능하면 입주 기간에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7) 창작공간 운영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창작공간별로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면 예술가는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커뮤니티공간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이 가능함.
- 공공성을 띤 예술 창작공간이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입주 작가들과 행정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이 필요함.

8) 예술가의 지역 정착 강요정책 추진

-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주거정책에 예술가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을 건설할 경우 예술가가 해당 주거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주거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예술가들이 강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에 더하여 입주 작가들이 입주한 주거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허용해 줌.
-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예술이 생활에 스며들고, 그 결과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문화 지원정책이 필요함.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4. 연구 의의와 한계점	7
II. 창작공간 정책 및 사례 분석	8
1. 창작공간 지원정책	8
2. 국외 창작공간 지원정책	21
3. 시사점	25
III.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2
1. 창작공간 사례 분석	27
2. 사례 분석 결과	49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15
1. 지역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결과	51
2. 전문가조사 결과	76
V.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58
1. 전문 기획자 제도 운영 활성화	85
2. 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86

3.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지정	87
4. 제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88
5.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의 지속화 방안 마련	88
6. 레지던스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 운영	90
7. 창작공간 운영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91
8. 예술가의 지역 정착 강요정책 추진	92
 참고문헌	 93
 Abstract	 95
 <부록> 설문지	 96

<표 목 차>

<표 II-1> 창작공간의 기능별 분류	01
<표 II-2> 혼합재로서 예술의 편익	11
<표 II-3> 연도별 폐교 활용 창작공간 조성	31
<표 II-4>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 성과보고서 주요 내용	51
<표 II-5>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 대상	71
<표 III-1>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단체 현황	82
<표 III-2> 빈집프로젝트 연도별 지원 예산액	92
<표 III-3>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단체 현황	23
<표 III-4> 예술인 입주점포 현황	53
<표 III-5>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현황	83
<표 III-6>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14
<표 III-7>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 현황	34
<표 III-8> 우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현황	54
<표 IV-1> 인구 통계적 특성	35
<표 IV-2>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의미	45
<표 IV-3> 예술가의 창작 활동	45
<표 IV-4>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55
<표 IV-5>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55
<표 IV-6>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65
<표 IV-7>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65
<표 IV-8>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75
<표 IV-9>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75
<표 IV-10>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관련 부족한 정책 및 사업	85
<표 IV-11>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95
<표 IV-12>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속 운영 희망 여부	95
<표 IV-13>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속 운영을 위한 정책	06
<표 IV-14>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운영 주체	06
<표 IV-15>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시 기대 사항	16

<표 IV-16>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험	16
<표 IV-17>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이유(복수 응답)	26
<표 IV-18>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빈도	36
<표 IV-19>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우	36
<표 IV-20>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46
<표 IV-21> 문화예술 옥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46
<표 IV-2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56
<표 IV-23>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66
<표 IV-24> 축제·행사 참여	66
<표 IV-25>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로	76
<표 IV-26>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소양 향상	76
<표 IV-27>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	8
<표 IV-2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	86
<표 IV-29> 창작·제작, 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	9
<표 IV-30> 교류·소통 능력 향상 또는 기회 확대	9
<표 IV-31>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07
<표 IV-32>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	07
<표 IV-33> 문화예술 창작공간 프로그램 중심 대상	17
<표 IV-34>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복수 응답) ...	27
<표 IV-35> 향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의향	2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수행 체계도	6
[그림 II-1] 서울시 창작공간 현황	8

I.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문화예술의 주요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 여건 마련 등 문화복지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지역·세대·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선택한¹⁾ 것을 보더라도 향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음.
 - 국정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등이 선정됨.
-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주로 향유자의 측면에서 문화시설 확충, 양질의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 등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역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예술가들의 창작 환경을 보장해 주고, 창작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예술가 지원정책도 필요함.
-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정책이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 참조하여 정리함.

시행되고 있음.

- ‘레지던스’²⁾는 일정기간 창작자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 제작에 필요한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함.
- 이와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에는 공간 제공형, 프로젝트형, 지역 중심형, 교류 중심형 등이 있으며, 사업 주체의 목적에 따라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이 달라짐.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은 빈집프로젝트,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예술인 입주점포 등과 같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의 레지던스 유형별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지역의 빈집프로젝트사업은 공간 제공형과 지역 중심형이 혼용되어 있고,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공간 제공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창작스튜디오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공간을 가리킴.
 - 빈집프로젝트는 지역 공동화(농산어촌, 구도심 지역 등) 현상으로 빈집이 발생함에 따라 이곳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리킴.
-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는 ‘창작센터,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빈집프로젝트’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용어가 혼재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창작공간으로 통칭하였음(자세한 내용은 2장 참조).
-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므로 예술가의 창작 여건을 보장해 준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운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레지던스(Residence)와 레지던시는 외국어 발음의 차이에 따라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레지던스로 사용하고자 함. 다만 사업명에 레지던시로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함.

2. 연구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을 전후하여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빈집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었고, 제주지역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4년간(2011~2014) 지원됨.
 - 이 사업은 농산어촌 읍·면지역에는 있는 빈 집을 창작공간(하드웨어)으로 변모시키고, 문화예술 관련 운영자 또는 기획자 활동을 지원하였음.
- 빈집프로젝트사업과 더불어 추진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 구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레지던스사업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진흥정책에 따라 전국에 확산됨.
- 제주시에서는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을 추진하였으며(제주시 삼도2동 구 제주대학교병원 일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로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시도하였음.
 -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팀에 16명이 선정되어, 입주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한 편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술가의 창작기반 조성과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창작공간의 부족, 소규모 극장의 부족, 예술시장의 비활성화,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예술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는 물론 이 공간 소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가의 역할,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범위

1) 공간적 범위 : 행정기관의 지원사업 대상 창작공간

-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은 4년간(2011~2014) 5개의 창작공간이 선정·지원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음.
 - － 아트창고(2011), 공연창작스튜디오페이스(2012), 제주아트프로젝트(2013), 제주도좋아(2013), 아테우리(2014) 등 총 5개 단체임.
- 예술인 입주점포 지원사업에 따른 입주 작가는 2017년 기준 13팀에 16명임.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5곳이 있음.
 - －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공예공방
 - －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예술가 대상 창작공간
 - － 예술공간 이아 창작센터
 - － 우도창작스튜디오
- 마을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은 3곳이 있음.
 - －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 － 문화공간 양
 - － 서귀포문화빔데리충전소

2) 시간적 범위

- 창작공간 지원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하여 현재까지

3) 내용적 범위

- 정부의 창작공간 지원정책 및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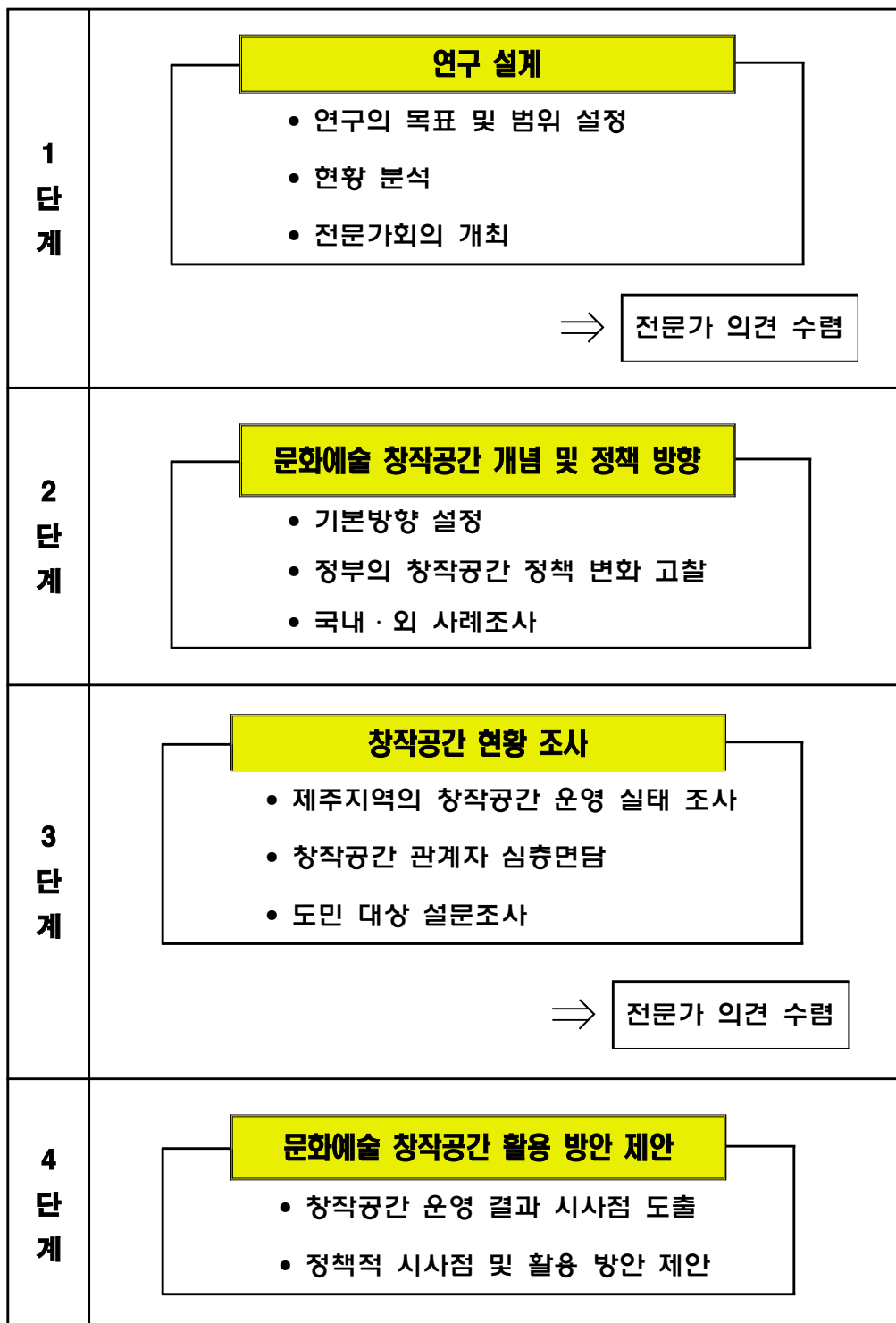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사례
- 창작공간 관계자 심층면접 및 도민 대상 설문조사
-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나. 방법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현황과 지역 주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운영 현황, 창작공간 관계자(운영자, 기획자 등) 면접조사,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방법을 취함.
- 정부와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분석
 - － 정부의 창작공간 정책 방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사례 분석
- 문화예술 창작공간 관계자(운영자, 기획자 등) 심층면접 및 도민 설문조사
 -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담당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
 - － 창작공간이 있는 지역의 주민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 －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예술가 지원정책 방향 제언

다. 연구 수행 절차

- 이 연구는 연구 계획 설계, 문화예술 창작공간 개념 및 정책 방향 수립, 창작공간 현황 조사, 창작공간 활용 방안 제시 등의 단계로 구성됨([그림 I-1]) 참조).



[그림 I-1] 연구 수행 체계도

4. 연구 의의와 한계점

- 일반적으로 창작공간이라고 하면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장소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빈집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공간과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으로 선정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점검해 보는데 의의를 두었음.
- 이 연구는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창작스튜디오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창작공간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음.
- 이 연구는 행정기관에서 진행한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며 파생되는 문제점 등은 다루지 못하였음.
- 따라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성격상 전문 기획자 역할, 운영기간의 지속 가능성, 행정기관의 요구 및 기대, 입주 예술가들의 요구 및 기대 등 행정기관, 예술가, 지역 주민 각자의 입장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음.
- 이 연구 결과 행정기관에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술가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하여 공유와 교류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향후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총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더불어 제주 도민들의 인식과 기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

Ⅱ. 창작공간 정책 및 사례 분석

1. 창작공간 지원정책³⁾

가. 창작공간 관련 개념 및 특성

- 예술 작업실, 스튜디오, 공방, 연습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통칭할 필요가 있을 때,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창작공간’이란 용어를 사용함.
- 창작공간은 2009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으며, 여러 장르와 분야를 포괄하는 공간으로 예술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공간,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공존 가능한 공간, 예술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공간 등 종합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함.
- 또한 창작공간은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예술 창작이 행해지는 곳 또는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반면 창작공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이고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양건열, 2004 : 12).
- 미국 예술가 커뮤니티 연합(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에서는 아트 스튜디오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들이 원래 거주하던 생활권을 벗어나서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이 부분은 김연진(2013)을 참조하여 정리함.

-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국제 네트워크 기구인 RES ARTIS에서는 아트스튜디오를 ‘특별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과 더불어 독립적인 단위체로서의 경영’이라 정의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 역시 학문이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개념이 아니며, 레지던스 프로그램, 창작레지던스, 창작실, 창작소, 창작공간, 작업실, 연습실, 공방, 예술촌, 예술마을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창작 레지던스’등은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과 지원 조직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특징임.
- ‘창작스튜디오’는 창작공간의 안정적인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창작스튜디오에서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창작 레지던스의 역할을 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에는 창작스튜디오에도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맥락에서 새롭게 문화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확산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나. 창작공간의 특성 및 지원 당위성

- 창작공간은 예술 창작의 고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소통과 협업이 강조되는 커뮤니티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즉 개별 창작에 몰두하면서 타 예술가 및 단체와 소통·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요구함.
- 또한 생활과 창작활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예술 창작활동의 특성상, 창작공간 역시 주거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이 요구됨.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이와 같은 창작공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는 창작활동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의 확보 및 임대료 절약을 위한 것이기도 함.

- 창작공간은 장르별로 그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⁴⁾ 각 예술 장르별 고유성, 독립성, 적합성과 창작스튜디오 공간 유형, 설립목적 및 기능과 적합성이 강조됨.
- 창작공간은 일반적으로 창작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며, 예술 컨버전스 장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함.

<표 II-1> 창작공간의 기능별 분류

분류	세부내용
작업 공간 제공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함.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담론 형성	숙박과 거주 공간을 갖춘 레지던스의 경우 작업실의 개념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기능을 중요시 함. 특히 이들의 교류와 소통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어 거시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예술적 진보를 도모함.
예술적 컨버전스의 장 제공	예술 창작공간의 현재 추세는 다(多)장르를 수용하고 있어서 개성이 뚜렷하던 예술 장르들이 점차 복합장르로 융합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 또한 각 장르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 산출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함.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지역사회 주민들과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가에게는 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예술을 접할 수 기회를 제공함. 현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많은 예술 창작스튜디오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의 총 12가지 장르로 구분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무용, 연극, 양악, 국악, 다원예술로 구분하였음. 반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2)에서는 문학, 미술(서예, 조각,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로 구분되어 있음.
이와 같은 장르 구분 기준을 고려하여, 창작스튜디오의 장르를 문학, 시각예술(미술, 조형 및 설치, 사진, 공예, 디자인),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영상(영화, 미디어), 전통예술(국악), 다원예술(복합예술), 공공예술(커뮤니티 아트)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경제, 사회, 과학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 이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공공재 및 혼합재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
- 예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⁵⁾이며, 이러한 성격은 예술 활동의 고유가치(intrinsic value)에서 찾을 수 있음.
- 또한 예술은 순수 공공재와는 달리, 판매함으로써 비용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과 사유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혼합재로 분류되기도 함.
- 혼합재로서 예술의 편익에 대하여 Baumol과 Bowen은 국가적 위신, 사업적 관점, 사회 공헌과 미래세대, 교육 공헌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II-2> 혼합재로서 예술의 편익

분류	목적
국가적 위신	정신적·문화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 국가로의 위상
사업적 관점	문화 활동이 주변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편익, 즉 상점·호텔·레스토랑·bar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실질적 편익
사회 공헌과 미래세대	미래자산을 위한 예술 지원 및 기금, 예술 감상법을 배우고 아름다움에 대한 전승 책임
교육 공헌	교양교육이 커뮤니티 전체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 편익을 가져온다면, 예술도 동일한 편익을 창출

다. 창작공간 조성 정책의 흐름

- 정부의 창작공간 조성 정책은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창작에 대한 지원과 지역재생의 의미를 모두 추구하였음.

5)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짐(두산백과).

1) 폐교 활용 창작공간 지원정책

- 199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 창작공간 확충사업’의 구도에서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충남 논산시와 인천 강화읍 2곳에 폐교를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하였음.
- 1998년 문화부에서는 본격적인 창작공간 확충 계획을 세워 2003년까지 각 시·도별로 2~3개씩 조성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30개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매년 국고 및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2004년까지 29개소를 조성하였음.
- 특히 1999년 제정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폐교시설을 교육용 시설을 비롯하여 주민복지 시설이나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교 활용 창작공간 조성의 근거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음.

※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03. 23.]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타 법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 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06. 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06. 0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06. 07.]

- 이 당시 정부정책은 유휴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촉발되어 단순히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한다는 목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함하였음(박신의, 2013 : 82).
- 그러나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은 지리적 고립 때문에 예술가들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보수·관리의 어려움,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 인력 배치 불가능 등 지속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하여 사업이 단절됨.
-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당시 폐교 활용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은 당초의 설립 의도와 달리 예술가 개인 작업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은 기대하기 어려웠음.
- 2014년 기준, 운영 중인 폐교 활용 창작공간은 전국 28개소로 나타났다으며, 민간단체 설립 8개소, 기타 11개소로 민간단체나 개인 등이 설립하여 운영되는 형태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3> 연도별 폐교 활용 창작공간 조성

연도 조성방법	1985	1988	1989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폐교 활용	1	0	2	0	1	3	4	3	3	0	1	3	2	1	1	1	1	1	0

- 이와 같이 폐교 활용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사립 창작스튜디오인 씬지스튜디오 활성화 사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외적으로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활발해진 가운데, 정부에서도 2002년부터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음.

2) 창작스튜디오 활용 창작공간 지원정책

-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창작공간 지원정책은 새 예술정책(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의 구도에서 국·공립 단위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음.
- 2002년과 2003년에 서울시 창동과 경기도 고양시에 스튜디오를 개관하면서 국립 단위의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국립 현대미술관회에서 운영 중이던 창동 및 고양 스튜디오의 사업주체를 국립 현대미술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
 - 서울시 창동과 경기도 고양스튜디오의 기능을 차별화하여 창동스튜디오는 국내작가 중심으로, 고양스튜디오는 장기적으로 국제 레지던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함.
- 이후 국립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가 국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 미술계에서 주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국립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발적 사업을 유도하고, 공립 창작공간 확충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음.
- 당시 정부가 설정한 창작공간의 설립 목표는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 활력을 주입한다는 내적 타당성을 전제로 하여,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작품 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외부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음.
- 그런데 창작공간 관련 정책과제는 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연구와 이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집중되었고, 전국 단

위에서 진행되는 창작공간 사업은 국내 작가들이 단기간 입주하여 작업실 공간을 제공받고, 동시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화됨.

- 이와 함께 전국 창작공간의 운영 전문성 부족 및 시설 취약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시도되었음.
 -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은 2005~2006년에 진행되었으며, (사)미술인회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전국규모예술행사’로 지원받아 미술인들의 창작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범 미술계 사업으로 시도하였음.
 -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 성과보고서』(2006)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업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정책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5개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됨(<표 II-4> 참조).
- 이는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및 협의체의 문제의식 및 현황을 조사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미술 장르에 한정하여 개인 작업실까지 포괄하여 조사 결과를 포함하였음.
 -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은 미술 작가들의 개인 작업실을 대상으로 한 작업실 형태와 임대 및 경제상황의 현황 파악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지원으로 개인 작업실 연계 및 네트워크 형태의 전환을 위한 법적 정책, 작업실 기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

<표 II-4>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 성과보고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창작공간 매핑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작업실 현황 인터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답사보고서와 매핑에 참여한 작가들의 약도와 작가 연락처를 수록함.

구 분	내 용
정책토론회	지역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정책이 만나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여,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수록함.
오픈스튜디오페스티벌	작가의 작업들이 지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미술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미술시장 형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지역 행사 성과를 수록함.
작업실 이야기	아뜰리에 뉴스기자들이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여 심층 취재한 기사를 수록하고, 작가의 작품 성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작업실 모습과 삶의 이야기를 수록함.
설문조사 분석결과	1년 간 전국대상으로 배포한 창작환경 실태 설문지를 수집, 분석하여 실태를 조사함.

- 또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전국 창작공간 네트워크 워크숍’을 실시하여(서울문화재단, 2010), 전국 각지의 창작공간 운영자와 대표자의 네트워크,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발전 방안 논의가 진행됨.

3) 유휴공간 활용 창작공간 지원정책

- 2008년 이후 창작공간 관련 정책은 창조도시 및 지역재생의 구도 속에서 단기간에 확산됨.
- 정부 차원의 시도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창작공간이 도시재생, 지역문화 진흥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하에 전국으로 확산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시행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폐산업시설을 지역문화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됨.

<표 II-5>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사업 대상

지역	사업대상	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
전북 군산	내항 근대유산	근대사, 공연	내항부두 및 일제강점기 건물의 문화공간화
전남 신안	염전, 소금창고	소금, 체험	미술관, 공연장 및 소금문화 체험 공간 조성
경기 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창작스튜디오 조성 조각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대구	옛 KT&G 연초장	예술창작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예술창작프로그램
충남 아산	옛 장항선	공연, 전시	도고온천역 등 옛 역사의 문화공간화

-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협력형 사업으로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진행⁶⁾하여 일부 폐산업시설을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2015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로 공간 재창조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술관 부설 창작공간과 지역문화재단 중심 별도의 독립 창작공간 형태로 이루어졌음.
- 미술관 부설 창작공간으로는 광주 시립미술관이 광주 양산동의 근로자 아파트를 개조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조성⁷⁾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은 난지도의 침전물 정화시설을 개조하여 창작스튜디오로 조성하였고, 대전시립미술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소 건물을 활용하여 2008년부터 대전창작센터를 운영⁸⁾함.
- 경기도 역시 선감도에 위치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2009년 창작

6) 2013년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청주문화산업단지, 시화반월국가산업지(안산, 시흥), 광주소촌농공단지, 강원 영월농공단지,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광명 폐자원회수시설, 부천 폐소각장, 웅진 구백령병원, 담양 폐양곡창고, 전남 나주 폐잡사 등이 선정됨.

7) 광주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는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적합으로 운영이 중단됨(2013.03.25.).

8) 대전 창작센터의 경우, 입주 작가 창작공간보다는 전시공간 등 창작 지원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센터로 전환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2008년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인천 아트플랫폼을 조성하였음.

- 서울특별시의 경우, ‘창의 문화도시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 유휴공간을 예술 창작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팩토리사업을 진행하였음.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그림 II-1] 서울시 창작공간 현황

- 서울시는 다양한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과 창작 여건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부여하면서 창작과 향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이에 ‘예술-사람-도시’를 잇는 문화공간으로서 장르 간 통합과 지역 사회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예술 참여를 도모하였음.

- 이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에는 금천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홍은예술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등이 있고, 서울시 운영 공간인 남산창작센터, 남산예술센터 등 총 11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4) 도시재생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정책

- 이 지원정책은 직접적으로 창작공간 조성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나,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마중물사업으로서 창작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있기도 함.
 -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창작공간의 조성과 운영은 창작의 지원보다는 슬럼화 된 도시환경의 개선, 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촉매로서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실제로 2014년 선정된 13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충북 청주, 충남 공주, 경북 영주, 대구 남구, 목포, 천안, 부산 등의 활성화 계획에는 창작공간 및 예술창작촌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사업	사업형태	지자체
전망대 및 아트팩토리 조성사업	마중물	부산
Creative 아트팩토리 조성	마중물	청주
공연연습장 조성	연계	청주
문화예술 팩토리 조성사업	마중물	천안
문화예술 스튜디오 조성	마중물	천안
공주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마중물	공주
목금토공방	마중물	영주
에코지오 창작촌	마중물	순천
유희시설 활용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마중물	목포
공연예술 연습실 운영	지방자치단체	대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정부부처 협력	대구
대명 공연 문화거리 활성화사업	마중물	대구
공가 활용 프로젝트	마중물	창원

- 이들 중 창원시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창동예술촌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조성하는 부림공예촌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탁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즉, 기존 상가의 리모델링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대신 일정기간(10년) 신탁운영을 하여, 예술가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문화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빈집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였음.
 - 이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 집, 빈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연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마을에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가에게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음.
- 창작공간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된 것은 도시구조 재편에 의한 유희공간에 자생적으로 조성된 예술 창작공간이 예술 특화지역으로 명소화되었기 때문임.
 - 풍부한 표현력과 창조력에 의해 공간을 재창조하는 일에 능한 예술가의 특성과 창의적이고 참여적이어서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예술의 속성을 바탕으로, 창작공간은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집객력을 높여 명소화로 촉발하는 요소가 되었음.
- 예술가가 연출한 극적인 경관 변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슈가 되며, 지역의 특화요소가 되었음.
 - 특히 저평가된 지역, 유희시설 등 저이용 공간에서 이러한 사례가 주로 나타나면서 예술 창작공간, 특히 창작촌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 창작공간 밀집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성향이 특정한 시설을 보기 위해 오는 관람객이 아니라, 특이 경관 등 지역 자체의 분위기를 소비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 유도, 상업시설들이 성업하면서 관광지화와 상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 예술가가 밀려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음.

- 이미 많은 자생적 창작촌에서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문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동예술촌의 경우에도 초기에 비해 임대료가 4배 이상 상승하는 등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지역의 명소화, 도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창작공간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측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사업 초기부터 창작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신진 작가를 인큐베이팅하고 프로모션하는 예술창작스튜디오와 동아리 활동 중심의 시민예술창작소, 예술가 거주촌, 작가의 아틀리에 등 다양한 창작공간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해당 창작공간의 고유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 지원과 창작공간 조성을 구별하여, 대상과 목적에 맞게 운영·지원하여야 함.

2. 국외 창작공간 지원정책

가. 프랑스 아틀리에 지원정책⁹⁾

○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차원에서 분양 입주와 공사지원 방식으로 아틀리에를 지원함.

○ 아틀리에의 지원 종류는 창작공간과 최소한의 거주생활 조건을 제공하는 거주 아틀리에와 거주 기능 없이 작업만을 위한 공간인 작업 아틀리에로 구분됨.

9) 박지은(2016 : 192~205)를 참조하여 정리함.

- 거주 아뜰리에(atelier de logement)는 작업공간인 아뜰리에와 거주 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최소의 거주생활 요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됨.
- 거주 아뜰리에 지원은 프랑스 국적자는 물론,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예술가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파리를 국제적인 예술활동의 중심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 많은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몰리면서 파리의 예술적 입자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자, 각국의 예술가들을 파리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하여 예술 중심지로서 파리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책에 반영됨.
- 거주 아뜰리에의 입주조건은 예술가가 작업활동과 생활기반을 잡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기간 이후 입주 작가가 다른 곳에 자발적으로 정착하여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이러한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물가 등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발생하게 사실상 처음 입주한 사람이 평생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함.
- 결국은 정책 지원 목적을 조정하여 더 많은 예술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08년 이후로는 작업 아뜰리에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작업 아뜰리에(atelier de travail)는 거주 없이 예술 창작 작업만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높은 주거비 부담은 물론 주거와 작업의 분리가 어려운 예술가의 특성상(Work & Life) 작업 아뜰리에를 불법 개조하여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남.
- 프랑스의 예술가 아뜰리에 지원정책은 단순한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술 창작의 지원이라는 포괄적 범주에서 논의되므로, 조성된 아뜰리에에 입주하는 것은 물론 예술가 스스로 아뜰리에를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것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장비의 구입도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작업 공간의 상태, 변경을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 예산 상세 내역 및 공사완료 리포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공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틀리에 외에도, 최근에는 파리 7구에 위치한 아틀리에 영 꼬맹(L'atelier an Commum)과 같이 대안적인 공공 아틀리에가 나타나고 있음.
- 영 꼬맹은 예술가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열린 창작공간으로 7구 구청 보조관 프레데릭 드 보우와와 스캇 회화작가인 피에르 망쟁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짐.
- 옛 전기공사 EDF(프랑스전력주식회사)의 전기변환소를 예술가들의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였으며, 공간 확보 예산은 파리가 지원하고, 공사 시공과 관련된 재정은 일드 프랑스에서 지원하였음.
- 공공 아틀리에에는 수영장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운영 방식의 원칙에 따라 운영함. 즉 사용자는 일정 금액의 등록금을 내고 공공 기기로 준비된 작업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예술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

나. 영국 런던 Acme¹⁰⁾

-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추진된 저렴한 창작공간 제공 모델은 예술가 주도 단체 및 기관이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단기, 저비용의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임시 제공이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나타났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창작공간화 되기 때문에 시설 여건 등에서 예술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음.
- Acme는 전문 부동산업체 및 자선주택조합으로 창작공간 제공의 개

10) 데이빗 팬톤(2016 : 8~16)을 참조하여 정리함.

척자로 회자됨. 1994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금이 생기고, 예술 부분이 이 기금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Acme는 전통적인 부동산 관리 모델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음.

– 반면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이 제공되었으나 장기적인 안정성 보장이 힘들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나타남.

○ 이에 1996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를 통해 120만 파운드(총 프로젝트 비용 190만 파운드 중)의 국가 운영 복권기금을 신청하여 주요 건물(코퍼필드 로드, 길렌더 스트리트의 소방서)을 구매하고 전환하였음.

○ Acme는 이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예술가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본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2000년에 세 번째 건물을 매입하여 창작공간의 수 증가와 저비용 임대를 실현하였음.

○ 2005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200만 파운드를 기초로, 상업용 주택 개발업자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예술가들이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창작공간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예술가의 창작공간은 주택가와도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상업공간의 활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이해를 만족시키며, 효과적인 브랜딩 요소로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모델이 활발히 구현되고 있음.

○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적 토지신탁(Cultural Land Trust)’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자선기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이 가시적 행사나 기념물, 작품 주문 등 현재의 문화적 자금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사용된다는 것임.

– 대규모 재원은 상업적 개발부문과 협력을 통해서 구축하나, 그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창작공간 운영기관이 하는 형식임.

- 현재 런던에는 잉글랜드의 다른 모든 지역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창작공간이 건물에 위치하며, 전체 창작공간의 58%가 런던에 밀집되어 있음.
- 이러한 공간의 2/3 이상이 런던의 동부와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1개의 집단에서 2,500명의 예술가에게 저렴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89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예술가만 3,500여 명에 이르는 등 창작공간을 이용하려는 예술가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창작공간의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임.

3. 시사점

- 국내의 창작공간 조성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허공간을 활용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재생의 의미를 포괄하고자 했음.
- 신진작가 인큐베이팅을 위한 레지던스 운영이나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예술창작촌을 조성하는 경우, 예술가 임대주택사업 등이 이에 해당됨.
- 국외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사업여건을 충족시켜 디벨로퍼(developer)가 자율적으로 공급·운영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음.
- 런던의 사례에서처럼 상권의 매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창작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는 소득이 낮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서 이들의 거주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창작공간 지원 당위성이 있다는 뜻임.
- 런던지역의 창작공간은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개발·운영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는 역시 민간조직이며, 해당조직에는 NGO와 재단 등도 있고,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있음. 이들은 총 298채 건물에서 11,500실의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예술가는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사용하며, 이 공간들은 기부금과 정부지원금, 임대료 수입 등을 바탕으로 개발·운영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예술 창작공간의 공급은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 중심의 예술가 창작공간 공급은 제한적인 편임.
- 한편 공공부분의 창작공간 지원정책 자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하나,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정밀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따라서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개입과는 별도로, 보스턴이나 런던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예술가의 수요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간조직의 예술가 창작공간 개발·운영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예술가 창작공간 개발 의지가 있는 민간 디벨로퍼에게 도시계획 관련 인센티브 혹은 건설비용 보조(금융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파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에 예술 인력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공간과 주거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Ⅲ.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1. 창작공간 사례 분석

- 이 장에서는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이라 할 수 있는 빈집프로젝트사업,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 등에 한정하여 운영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함.

가. 빈집프로젝트사업

1) 현황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읍·면지역의 낡고 비어있는 공간을 재활용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임.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빈집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때 주로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들이 선정되었음(<표 III-1>).
- 빈집프로젝트사업 취지는 다음과 같음.¹¹⁾
 - 이 사업은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마을단위)에 있는 빈 공간(빈 집 또는 창고)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문화예술 공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지원 내용은 읍·면지역 마을의 빈 공간(집, 창고)을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작품 및 공간 운영 등임.

11) 빈집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당시 지원사업 공모 안내 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 이 공간의 사업 주체는 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작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나 기존단체와 연계한 단체에 한정함.
- 빈 집의 계약 조건을 보면 전문예술단체와 빈 집 소유자 간에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데, 창작공간 설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 활용기간은 5년으로 정했음.
- 이 사업은 주로 창작공간 대표가 기획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함.
 - 지원금은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제작과 기획 인건비) 등에 한정되고, 인건비인 경우 최소한의 비용이 책정되어서, 운영자(또는 대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이 계약기간 동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레지던스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이 수반되었음.
-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단체 현황(<표 III-1>)을 보면 매년 1개소씩 5년 간 5개소의 창작공간이 지원됨.
 - 아트창고는 삼달리에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종료되어(2011~2014), 동일한 이름으로 덕천리(구좌읍)에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선정·운영됨(2015~2016).
 - JEJUARTPROJECT와 아테우리는 빈 창고를 운영할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 그 외 창작공간은 운영자(대표 및 기획자)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영됨.

<표 III-1> 빈집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단체 현황

연번	신청단체(개인)명	신청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사업장소
1	아트창고	삼달리, 그리고 문화트래킹	2011년 90,000천원	성산읍 삼달리
2	공연창작스튜디오페이스	하례 예술놀이터 - 꿈꾸는 고물상	2012년 100,000천원	남원읍 하례1리

III.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연번	신청단체(개인)명	신청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사업장소
3	JEJUARTPROJECT	유수암버스차부	2013년 100,000천 원	애월읍 유수암리
4	제주도좋아	반짝반짝지구상회	2013년 100,000천 원	애월읍 봉성리
5	아테우리	탐라순력도	2014년 100,000천 원	한경면 저지리

· 출처: 제주문화예술재단

- 빈집프로젝트사업에 지원된 예산규모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1단체 1억원이 지원됨.

<표 III-2> 빈집프로젝트 연도별 지원 예산액

연도	예산(단위: 천 원)			비고
	국비	도비	계	
2011	45,000	45,000	90,000	
2012	55,600	44,400	100,000	
2013	77,000	123,000	200,000	2개 단체 각 1억원
2014	41,400	58,600	100,000	

※ 국비와 도비 예산 분포는 총 예산 분포에 따라 산정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제주문화예술재단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창작공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후 5년 동안 건물 임대료와 운영비는 운영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조건임.
 - 이 창작공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참여 기회가 주어짐.
 -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레지던스 지원사업)에는 워크숍, 프로

그럼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 운영 초기 일부 운영자는 이 사업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인 창작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음.
- 향후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관에서 선정 조건과 운영 방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정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함.
 - － 공공성을 띤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개인적인 창작 공간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함.
- 창작공간 운영자(또는 기획자)의 접근 방식과 태도에 따라 이 지원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역할이 부족해 보임.
 - － 지역에 있는 창작공간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이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역할이 미미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단순히 개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므로,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함.
 - － 지역 주민들이 자력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창작공간 운영 방향이 정해져야 함.
 - －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노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술활동 참여를 통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 또한 문화예술 소외지역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지역 주민 간에 창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함.

- 기획자와 같은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예술가들 간에 교류전도 가능하고,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 간에도 공유와 소통이 원활해질 것임.
- 창작공간 간의 교류 기회 확대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매개자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자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함.
- 창작공간 지원금에 대한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가 필요하고, 창작공간 운영자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의지가 중요함.
- 지역에 따라 창작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행정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자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요구하기도 함.
- 지역 주민들이 창작공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 다만,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을 예술가를 무조건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함.

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에 프로젝트형이 있는데, 이는 예술가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예술가들이 프로그램 기획자를 중심으로 모여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뜻함.
- 이 사업은 예술가들이 레지던스로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목적, 지원분야, 주요내용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음.¹²⁾

12)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개요는 당시 공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반 강화, 특성화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선정·지원됨(<표 III-3>).
- 지원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다원 및 복합장르 중심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레지던스 운영 목적이 뚜렷하고, 장르별·공간별·프로젝트별 특성이 명확해야 함.
- 사업 내용은 입주 예술가의 창작·비평, 발표·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해 주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사업의 특성에 부합해야 하며, 제주지역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입주 예술인과는 별도의 큐레이터 등 기획자를 배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사업비에는 기획자 인건비, 입주 작가의 창작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지원 금액이 낮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는 4년 간 17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동일단체가 2회 선정되기도 함(<표 III-3> 참조).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관련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그 결과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했던 주민들이 좀더 나은 향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음.

<표 III-3>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단체 현황

연 번	신청단체(개인)명/ 주소	신청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예정액	사업장소 (출판사)
1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서귀포시 서귀동	예술+인+집; 레지던스 프로그램(Art In House)	2010. 09.~12.	제주도 전역
			40,000천원	
2	모던아츠/ 제주시 연동	모던아츠 창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0. 09. 20.~12. 31.	모던아츠 창작 스튜디오
			20,000천원	

III.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연 번	신청단체(개인)명/ 주소	신청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예정액	사업장소 (출판사)
3	강승철/ 제주시 연동	담화헌 오픈스튜디오 “숨쉬는 제주옹기, 생 활에 물들다”	2010. 10. 01.~12. 30.	담화헌 스튜디오
			25,000천원	
4	이가영/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공연창작스튜디오 - Perfoming Artists in 서귀포	2010. 10. 01.~12. 31.	법환청소년문화 의집 외 3개처
			30,000천원	
5	제주문화포럼/ 제주시 삼도2동	어긋난 고리를 맞추다	2010. 09.~12.	문화공간 제주아트
			18,000천원	
6	담화헌스튜디오/ 제주시 해안동	담화헌오픈스튜디오 “6인6색-숨쉬는 제주 옹기세상과 소통하다”	2011. 05. 10.~12. 30.	담화헌 스튜디오
			50,000천원	
7	모던아츠/ 제주시 연동	모던아츠 창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2011. 05. 01.~12. 31.	모던아츠 레지던스 하우스 외
			50,000천원	
8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제주시 건입동	마라도 창작스튜디오	2011. 07.~12.	마라도 기원정사
			50,000천원	
9	가시리창작지원센터 예술인회/ 표선면 가시리	“제라한 예술공작” 프로젝트	2011. 05. 01.~12. 31.	표선면 가시리 일원
			45,000천원	
10	담화헌오픈스튜디오 /제주시 해안동	숨 쉬는 제주옹기, 소통과 나눔	2012. 04. 15.~12. 30.	제주시 해안동
			30,000천원	
11	아트창고/ 성산읍 삼달리	문화로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2012. 05. 01.~12. 30.	성산읍 삼달리
			45,000천원	
12	가시리창작지원센터 예술인회/ 표선면 가시리	2012년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사업	2012. 05. 01.~12. 31.	표선면 가시리 일원
			45,000천원	
13	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제주시 건입동	마라도 창작스튜디오	2012. 06. 18.~12. 31.	마라도 기원정사
			30,000천원	
14	가시리창작지원센터 예술인회/ 표선면 가시리	2013 가시리 제라한 예술공작프로젝트	2013년	표선면 가시리 마을 일원
			35,000천원	

연 번	신청단체(개인)명/ 주소	신청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예정액	사업장소 (출판사)
15	아트창고/ 성산읍 삼달리	길-문화유랑디딤길	2013년	성산읍 삼달리
			35,000천원	
16	문화공간 양/ 제주시 화북동	함께하는예술제작소	2013년	제주시 화북동
			40,000천원	
17	문화도시공동체쿠키/ 서귀포시 서귀동	수산보물찾기	2013년	서귀포시
			150,000천원	

· 출처: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1) 현황

- 2012년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전하고, 그에 따른 지역 상권이 위축되면서 빈 점포가 발생하는 등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이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제주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삼도2동 문화예술 거점사업’에 따라 빈 점포 입주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제주시는 2014년부터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13 곳에 16명의 작가가 입주하였음(<표 III-4> 참조).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예술가에게 빈 점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레지던스 사업에 해당됨.
- 이 사업은 지역의 빈 건물을 활용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골목에서만 ‘예술인 입주점포 지원’

Ⅲ.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이 가능하므로, 제주시에서는 예술가에게 임대료 지원, 간판 설치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입주 자격을 주고, 그간의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음.

<표 Ⅲ-4> 예술인 입주점포 현황

연번	위 치	면적 (㎡)	입주예술인		입주계약일
			인원	상호명	
1	관덕로 6길 6	40	1	그릇이야기 최작	2014. 07. 01.
2	관덕로 6길 6	48	1	쿤자살롱	2014. 05. 20.
3	관덕로 6길 13	134	1	가마앤조이	2014. 05. 20.
4	관덕로 6길 11, 2층	228	1	제라진	2014. 05. 20.
5	관덕로 6길 20, 2층	68	1	바농그림	2017. 08. 03.
6	관덕로 6길 16, 2층	124	1	숨suum ward rove	2017. 08. 03.
7	관덕로 6길 16, 지하1층	103	1	아트세닉	2014. 05. 20.
8	관덕로 6길 11, 지하1층	199	1	간드락	2014. 11. 07.
9	관덕로 6길 13, 지하1층	87	1	몬딱도르라	2014. 10. 07.
10	관덕로 6길 16	113	1	요보룩소보룩	2014. 10. 02.
11	관덕로 6길 20	25	1	화가엄마	2014. 10. 07.
12	중앙로14길 25, 2층	91	1	제마앤주마	2015. 12. 02.
			1	이미지스토리	2015. 12. 02.
13	관덕로 36, 2층	286	1	사진이야기	2016. 10. 09.
			1	전통조각보	2016. 10. 09.
			1	올래살래미디어랩	2016. 10. 09.

· 출처: 제주시 문화예술과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구 제주대학교병원 이전으로 원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유입인구의 증가 등 전반적으로 경제적 인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제주시와 입주 작가, 지역 주민들 간에 의견차가 나타남.
- 이 사업의 주요 위치는 상가와 주택가가 혼용되어 있는 공간이라 입주 작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상가는 상가대로 영업수익을 원하며,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술가들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등 각자의 기대치가 달라서 각 대상자들이 만족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게 현실임.
- 이 사업은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건물 임대료는 제주시가 부담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현재 입주한 예술가들이 이곳에 계속 머무르게 될지는 미지수임.
- 예술인 입주점포 지원사업은 5년(3년+1회 연장 2년)이며, 2019년 5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향후 창작공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 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건물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예술인 입주점포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한 예로 문화예술의 거리에 입주한 예술공간 오이는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에 입주했는데, 최근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이곳을 떠났음(2017년 8월).
-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빈 점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유동인구의 증가, 이곳에 입주하려는 예술가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건물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지역에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입주 작가들이 정착하여 안정적인 창작공간 운영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간 운영자가 운영비든 창작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행정기관에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입주 작가들과 개별 접촉이 어렵고, 예술가들 역시 사안별로 행정과 접촉하여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과 예술가들을 연결해 주는 기획자(겸 코디네이터) 배치가 절실한 실정임.
 - 기획자가 배정되면 예술가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입주 작가들 간에도 창작활동에 필요한 교류 지원이 가능할 것임.
- 현재 입주 작가들 중에 매개자 역할 담당자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일을 전담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제주시와 입주점포 작가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자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함.
- 이 외에도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 작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조화롭고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작공간의 역할과 효과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함.

라. 공공기관의 창작공간

1)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 현황 및 운영 방향

-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에 위치하며 시설은 2층 규모임.
- 입주 작가들은 도내, 국내, 국외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0명의 작가가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표 III-5> 참조).

- 입주 작가의 전공 분야는 회화(동양화,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 디자인,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미디어아트, 공예, 드로잉, 판화 등 시각예술 전 분야에 해당됨.
- 이 창작스튜디오는 관련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장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III-5>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현황

입주연도	기간	입주 작가 수	분야	원거주지
2009-1기	06. 05.~06. 30.	1	회화, 미디어	제주
2기	07. 04.~08. 29.	1	서양화	미국
	07. 28.~08. 29.	1	동양화	서울
3기	09. 01.~10. 30.	1	디자인, 동화	제주
4기	11. 09.~12. 31.	1	서양화	서울
2010-1기	02. 05.~04. 27.	1	서양화	서울
2기	05. 10.~08. 10.	2	서양화	서울
3기	09. 01.~12. 01.	1	설치미술	제주
2011-1기	01. 17.~04. 17.	1	비디오아트	서귀포시
2기	04. 29.~07. 24. 07. 25.~09. 10.	1	한국화	안양
3기	10. 01.~12. 30.	1	설치미술	제주시
2012-1기	02. 05.~07. 27.	1	미디어아트	서울
2기	11. 01.~04. 28.	1	매체, 미디어	제주
2013-1기	06. 01.~11. 30. 12. 01.~'14. 04. 30.	2	설치미술	서울
2014-1기	'14. 06. 01.~11. 30. 12. 01.~'15. 05. 31.	1	서양화	서울
2015-1기	'15. 08. 01.~'16. 07. 29.	1	공예, 회화	경기
2016	'16. 09. 19.~'17. 03. 18.	1	회화, 드로잉, 판화	제주
2017	'17. 06. 01.~'18. 05. 31.	1	시각, 설치, 현대개념미술	경기
총인원		20명		

·출처: 제주현대미술관 내부자료(2017. 07.)

Ⅲ.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 현대미술관은 미술관 본연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취지에 맞는 예술가를 연 1회 선정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에는 숙박과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고, 공간 운영 경비는 현대미술관에서 부담함.
 - 현대미술관 입주 작가는 매년 1명(2)이어서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입주 작가 간 교류나 지역 작가와 교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은 월 15일 이상 창작스튜디오를 사용하고, 현대미술관이 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입주 작가 초청전, 기획전 추진 시 미술관 측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입주 작가 워크숍,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시 미술관 측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현대미술관에서는 지역네트워크교류전을 개최하면서 입주 작가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있으며, 작가에 따라 단독 개인전을 개최해 주기도 함.
 - 미술관 측에서 인위적으로 교류를 유도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모든 활동은 입주 작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또한 미술관의 시설물 관리, 행사운영, 스튜디오 홍보 등이 필요할 때에는 미술관에서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하고, 작가는 개인작업실(2층)을 포함한 스튜디오 공간을 개방해야 함.
 - 스튜디오 개방의 날을 정해서 지역의 예술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현대미술관은 공공 문화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향유 기회 제공에 미흡한 실정임.
- 현대미술관이 속해 있는 저지리를 중심으로 한경면은 물론 한림읍 지역까지 포괄하여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노인층 등 세대와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목적성을 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한경면 저지리에는 예술인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김창렬미술관이 있어서 현대미술관이 문화지구 활성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와 같은 역할이 미미해 보임.
-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역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들이 미술관 이용 및 활용에 거리감을 두고 있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세대 간 문화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로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함.
- 아울러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이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역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2)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 공예공방

- 서귀포시는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2월에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완공하고 입주 작가를 지원하는 레지던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¹³⁾
- 이 창작스튜디오는 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에도 목적을 두고 있음.
 - 시설 규모를 보면 6개 작업실(29평형 2실, 26평형 2실, 20평형 1실, 16평형 1실 등), 전시실, 간이식당, 샤워장, 휴게실 등이 있음.
 - 1층은 공예공방, 2층은 창작스튜디오와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5층은 입주 작가 작업실로 구성됨.
- 2017년에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체험 교육을 진행하였음.

13)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와 직접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음.

- 이 교육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7명)들이 개인별 재능기부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입주 작가 공동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서귀포시와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함.
- 이 창작스튜디오에는 총 49명의 예술가가 입주했으며, 입주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선정함.
 - 단기는 개월 단위이고, 장기는 1년 단위에 해당됨.

<표 III-6>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연도	기수	작가 수(명)	비고
2009	1기	6명(장기 1)	
2010	2기	8명(장기 5, 단기 3)	
2011	3기	7명(장기 5, 단기 2)	
2012	4기	7명(장기 5, 단기 2)	
2013	5기	8명(장기 6, 단기 2)	
2014	6기	8명(장기 6, 단기 2)	
2015	7기	8명(장기 6, 단기 2)	
2016~ 2017 현재	8기	7명(장기 7) - 2016년 12월~2017년 11월)	2016년도에 창작스튜디오 시설 보수 예산이 반영되어 방수, 방음 등 시설 보수 후 2016년 8월에 제8기 입주 작가를 모집함.

·출처: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www.http://culture.seogwipo.go.kr/jslee/](http://culture.seogwipo.go.kr/jslee/))

- 이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기간 만료 후에 작품 1점을 기증하고, 입주 작가 기획전에 1회 참가해야 함.
 - 입주 작가들은 강좌형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며, 입주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에 창작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입주 작가 중심의 기획전 시회에도 출품해야 함.
- 이 창작스튜디오는 기수별 입주 작가가 여러 명이어서 자체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 작가들 중에서 지역 작가와 적극적으로 교류활동에 참여하기도 함.

- 이 공간에는 제주지역 작가들도 입주 가능함.
- 이 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을 개방해야 하는 조건이 없고,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게 운영되고 있음.

3)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 창작공간

(1) 예술공간 이아(ARTSPACE IAa)¹⁴⁾

□ 설립 취지

- 예술공간 이아는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작가 레지던스와 전시장, 연습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지역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이 공간은 2017년 5월에 개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50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 제주대학교병원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4층(연면적 2,462㎡) 규모를 창작공간 시설로 마련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와 20년 간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운영권을 위탁함.

□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¹⁵⁾ 프로그램 운영

-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시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국내 작가 8팀, 국외 작가 3팀(분기별 순차적으로 입주함) 등 11팀이 입주해 있음(<표 III-7> 참조).
- 입주 기간이 국내 작가는 1년이고, 국외 작가는 3개월임(문화예술비자에 따른 체류 기간의 제약).
- 예술공간 이아는 작업실에 한정되어 있으며, 숙소는 인근지역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14) 예술공간 이아의 현황은 홈페이지와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5) 레지던스와 레지던시는 같은 단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레지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기관의 사업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레지던시라 하였음.

<표 Ⅲ-7> 예술공간 이아 입주작가 현황

장르	입주기간	비고
영상	'17. 03. 02. ~ '18. 02. 28.	국내
사진, 설치	'17. 03. 02. ~ '18. 02. 28.	국내
사진	'17. 03. 02. ~ '18. 02. 28.	국내
영상, 설치	'17. 03. 02. ~ '18. 02. 28.	국내
설치	'17. 03. 02. ~ '18. 02. 28.	국내
설치	'17. 03. 02. ~ '18. 02. 28.	국내
퍼포먼스, 사진	'17. 03. 02. ~ '18. 02. 28.	국내
회화	'17. 03. 02. ~ '18. 02. 28.	국내
영상	'17. 04. 01. ~ '17. 06. 30.	해외(캐나다)
영상, 설치	'17. 07. 01. ~ '17. 09. 30.	해외(미국)
설치	'17. 10. 01. ~ '17. 12. 31.	해외(독일)
합계		11팀

·출처: 제주문화예술재단

- 입주 작가들의 준수사항에는 프리뷰 전시, 결과보고 전시, 프로그램 협력, 월 15일 이상 작업실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7년 3월 1기 입주 작가들은 개관전에 참여하였고, 입주 기간에 창작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결과보고전(2017. 12. 15. ~ 2018. 01. 31.)에 참여할 예정임.
- 예술공간 이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 입주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함.
 - 프로그램은 작가가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이아센터에서 기획할 수도 있음.
 - 주민연계 프로그램에는 목공수업, 퍼포먼스·움직임 워크숍, 사진 워크숍, 나의 한라산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작가가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함.
- 예술공간 이아에서는 입주 작가 대상의 지역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예술공간 이아는 신설 창작센터여서 앞으로 국내·외 예술가와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중심센터의 역할이 요구됨.
 -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이아센터가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도민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센터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음.
- 예술공간 ‘이아’는 레지던스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예술광장의 성격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함.
 - 예술가의 창작활동이나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함.

(2)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예술가 대상 창작공간

- 이 사업¹⁶⁾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시각예술 분야 8명을 선정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사업은 2017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에 8실을 마련하였음.
 - 이 창작공간에 지원 가능한 대상은 제주에 주소지를 둔 청년예술가에 한정하여 선정일 기준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간 이용이 가능함.
- 선정 결과 지원 분야는 캘리그래피, 회화·설치, 조각·설치·사진, 회화·그래픽, 회화 등 시각예술 분야이며 지원 조건으로는 결과보고 전시회와 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음.

4) 우도 창작스튜디오

- 우도 창작스튜디오(제주시 우도면)는 2012년 개관하여 국내·외 예술가의 창작 여건 조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창작스튜디오로 공간을 마련한 다음 2012년

16) 청년예술가 대상 레지던스사업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와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Ⅲ.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현황

우도면사무로로 재산관리권이 이전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우도면사무소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 우도 창작스튜디오는 원래 우도 문화센터가 있는 곳을 정부 지원사업에 의해 리모델링하였으며, 창작스튜디오 관리비는 우도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이 창작스튜디오는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4명의 입주 작가를 선정하였음(<표 Ⅲ-8> 참조).

<표 Ⅲ-8> 우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현황

연도	기수	작가수(명)	분야
2013	1기	4	사진, 한국화, 공연예술
2014	2기	4	회화설치, 사진, 영상조형, 회화
2015	3기	4	무용 퍼포먼스공연, 서양화, 사진, 회화
2016	4기	4	사진, 회화설치, 회화조각, 문학
2017	5기	4	시각예술, 동양화, 평면회화, 한국화, 설치회화

·출처 :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내부자료

- 입주 작가의 거주 기간은 1년이며, 기 입주 작가도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등 입주 기회에 제한이 없음.
 - 입주 작가는 월 15일 이상 거주해야 하고, 종료 후에는 작품 2점을 기증해야 함.
- 입주 작가들은 이 공간을 개인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시회, 공연 등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우도면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향후 입주 기간, 입주 후 조건 등 운영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

5) 폐교 활용 창작공간 조성사업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폐교(산양초등학교 부지, 한경면 산양리 소재)를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창작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17년 10월), 그에 따라 공간 조성, 입주 작가 선정, 지역 주민들과 협력 상생 방안 등을 마련 중임.
- 이 창작공간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성을 띤 창작공간에 해당됨.

마. 마을과 민간의 창작공간¹⁷⁾

1)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2009~2011)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복원하되,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와 연계하여 새로운 농어촌문화를 재생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가시리(서귀포시 표선면 소재)는 2010년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20억원을 지원받음(국비 10억, 도비 10억). 그 결과 목축문화박물관, 가시리문화센터, 예술인 창작지원센터 건립 등 문화시설을 보유하게 됨.
- 가시리 창작지원센터(2011년 8월 개관)는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작업실 4동과 공동 취사시설 1동, 목공 작업장 1동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스 공간으로 개관됨.
- 2011년 전국 공모를 통해 4명의 작가가 입주했으며, 기간은 8개월임(2011. 02. ~ 12.). 현재는 레지던스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입주 작가에게는 창작실과 숙박, 매월 체재비 등을 지원함.

17) 마을과 민간의 창작공간 현황은 홈페이지, 내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입주 작가는 지역 주민들을 소재로 하는 작업과 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시하며, 레지던스사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2) 문화공간 양

- 문화공간 양(제주시 화북동 소재 : 김범진 대표)은 2013년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 등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 공간은 운영자 조부모들이 살았던 제주의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 작업공간, 거주공간 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재탄생됨.
- 이 공간에서는 작가, 비평가, 기획자를 대상으로 예술가 레지던스사업, 신진작가 위한 전시지원,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강좌·토론회 개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공동체와 예술계의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레지던스	전시	세미나, 토론회	연구 활동
제주도 전통가옥인 돌집에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제주의 삶을 경험하게 함.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예술가들을 위한 강의 진행, 미술계의 주요담론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연구와 연구 결과를 출판함.

- 이 공간에서는 2017년 레지던스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레지던스 프로그램[주)우봉건설 후원]에 참여할 작가, 기획자, 비평가 등을 선정함.
- ‘2017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주문화예술재단)에 선정되어 전시프로그램도 운영함.

- 문화공간 양은 주택을 개조한 시설로 전시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나 창작공간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현재 이 공간은 창작공간 운영자와 기획자의 의지에 따라 제주를 찾아오는 작가들을 위한 지역 이해 과정, 지역 주민들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3) 서귀포문화뻗데리충전소

- 서귀포문화뻗데리충전소(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 김백기 대표)는 2014년 12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임.
- 이 공간은 건물주(강근수 원장)가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도심권 유희시설 문화거점공간 조성사업’ 기금 지원으로 조성됨.
- 이 공간은 창작 및 매개공간, 커뮤니티 브릿지 역할, 문화예술 행복충전소, 아트팩토리, 글로컬문화예술도시의 핵심 동력 제공, 미래형 일자리 창출 전략기획공간 등을 실천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음.
- 이 공간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음악, 퍼포먼스, 무용, 연극, 마임, 마술, 미디어, 문학 발표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과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에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아트충전소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이 공간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워크숍, 문화예술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서귀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 공간은 운영자가 기획자를 겸하고 있어서 다양한 실험예술을 선보이며, 서귀포지역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음.
- 2017년 핵심 프로그램에는 공연예술충전소, 시각예술충전소, 글로컬아트충전소, 무경계행복충전소, 지식충전소, 상생충전소 등이 있으며 각각의 사업 취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2. 사례 분석 결과

- 제주지역에서 추진된 빈집프로젝트사업,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등 행정기관의 지원사업에 따른 창작공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효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인 경우 이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운영자들은 별도의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 시행 당시에는 읍·면지역에 유헴공간이 있어서 창작공간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후 유입인구 증가와 지가 상승에 따라 빈 공간 임대료가 어려운 실정임.
- 한편 빈 창고가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그 공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창작공간 개관 목적을 벗어나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남.
- 공공재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창작공간인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운영자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으로 입주한 예술가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이 일대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도 입주 작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지역 주민들 중에는 예술가들이 입주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되므로, 거주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남. 또한 일부에서는 입주 작가들이 지역을 위해 재능을 기부해 주기를 바라는 등 무조건적인 기대심리도 나타나고 있음.
- 빈 점포 입주 작가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연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는 어려움이 나타남.
- 특히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장르는 다양하지만 예술가 개개인이 자신들의 창작 과정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이 사업의 효과라 볼 수 있음.
 - 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으며, 이곳으로 입주하려는 작가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예술인 입주점포와 인접하여 예술공간 ‘이아’가 있어서 향후 예술가들과 도민들에게 유익한 장소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음.
- 창작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자나 기획자의 운영 철학이 매우 중요한데, 문화공간 양이나 서귀포문화빔데리충전소 등은 좋은 모델을 보여줌.
- 한편 사례 분석 결과 창작공간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사회참여 태도에 따라 개인적인 작업에 그치거나, 지역 주민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등에 변화가 있음을 보았음.
- 제주지역에서 추진된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예술을 매개로 하여 도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예술 생활화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1.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이 조사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창작공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및 빈집프로젝트사업 진행 공간)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조사개요

가) 표본설계(Sample Design)

- (1) 모집단(Population) : 창작공간 소재 관련 지역(제주시 삼도2동 등과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일대 지역 등)
- (2) 표본추출방법 : 임의편의추출
- (3) 표본 크기(Sample size)
 - 202부(제주시 삼도2동 50부, 화북 거로마을 14부, 애월읍 봉성리 15부, 애월읍 유수암리 12부, 한경면 저지리 15부,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일대 51부, 성산읍 삼달리 15부, 남원읍 하례1리 15부, 표선면 가시리 15부)
- (4) 조사 방법 및 자료수집 도구 :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구조화된 설문지
- (5) 조사 기간 : 2017. 9. 28. ~ 10. 12.
- (6) 조사장소 및 조사주체 : 제주 전지역, 사회조사센터

나) 자료 분석(Data Analysis)

-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23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 자료는 빈도와 교차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함.

다) 분류(분석) 변수(Analysis Variables)

○ 성별, 연령, 생활수준, 거주지 등

3) 주요 조사내용

○ 창작공간 인식과 관련한 내용

－ 창작공간의 의미, 창작공간 기능의 중요도 및 부족한 점, 활성화 내용, 주체, 기대효과 등

○ 창작공간 이용 경험과 관련한 내용

－ 이용 경험여부 및 이용 이유, 이용횟수, 참여 프로그램 및 만족도, 경험한 변화 정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운영 중심 계층, 향후 이용 의향 등

나. 분석 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 202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성별은 여성 112명(55.4%), 남성 90명(44.6%) 등으로 나타남.

○ 연령은 40대 57명(28.3%), 50대 56명(27.7%), 20대 37명(18.3%), 30대 33명(16.3%), 60대 17명(8.4%), 70대 이상 2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는 제주시 동지역 64명(31.7%), 서귀포시 동지역 51명(25.2%), 서귀포시 읍·면지역 45명(22.3%), 제주시 읍·면지역 42명(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표 IV-1>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90	44.6
	여성	112	55.4
연 령	20대	37	18.3
	30대	33	16.3
	40대	57	28.3
	50대	56	27.7
	60대	17	8.4
	70대 이상	2	1.0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64	31.7
	제주시 읍·면지역	42	20.8
	서귀포시 동지역	51	25.2
	서귀포시 읍·면지역	45	22.3
합 계		202	100.0

2) 창작공간 인식

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의미

-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의미에 대하여, 창작·전시·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시설 94명(46.6%), 예술가의 작업 공간 37명(18.3%), 친교·교류 등 만남과 소통의 공간 24명(11.9%),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학습 공간 20명(9.9%),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활동 공간 16명(7.9%), 예술가의 거주 공간 11명(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예술가 개인의 작업공간은 물론, 지역 문화시설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

<표 IV-2>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의미

구 분	빈도(명)	비율(%)
예술가의 작업 공간	37	18.3
예술가의 거주 공간	11	5.4
창작·전시·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시설	94	46.6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학습 공간	20	9.9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활동 공간	16	7.9
친교·교류 등 만남과 소통의 공간	24	11.9
기타	—	—
합 계	202	100.0

나)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의 중요도

(1) 예술가의 창작 활동

○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하다 125명 (61.9%), 보통 68명(33.6%), 중요하지 않다 9명(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평균은 3.69로 나타남.

<표 IV-3> 예술가의 창작 활동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3.69
중요하지 않다	9	4.5	
보통	68	33.6	
중요하다	101	50.0	
매우 중요하다	24	11.9	
합 계	202	100.0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2)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하다 111명(55.0%), 보통 76명(37.6%), 중요하지 않다 15명(7.4%) 등으로 나타남.

－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평균은 3.60으로 나타남.

<표 IV-4>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5	3.60
중요하지 않다	14	6.9	
보통	76	37.6	
중요하다	84	41.6	
매우 중요하다	27	13.4	
합 계	202	100.0	

(3)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작가와의 만남 등)

○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요도는, 중요하다 113명(55.9%), 보통 80명(39.6%), 중요하지 않다 9명(4.5%)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균은 3.63으로 나타남.

<표 IV-5>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1.0	3.63
중요하지 않다	7	3.5	
보통	80	39.6	
중요하다	88	43.5	
매우 중요하다	25	12.4	
합 계	202	100.0	

(4)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전시, 공연 관람 등)

○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하다 152명(75.2%), 보통 45명(22.3%), 중요하지 않다 5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균은 3.92로 나타남.

<표 IV-6>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5	3.92
중요하지 않다	4	2.0	
보통	45	22.3	
중요하다	113	55.9	
매우 중요하다	39	19.3	
합 계	202	100.0	

(5)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요도로는 중요하다 132명(65.3%), 보통 65명(32.2%), 중요하지 않다 5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균은 3.79로 나타남.

<표 IV-7>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3.79
중요하지 않다	5	2.5	
보통	65	32.2	
중요하다	99	49.0	
매우 중요하다	33	16.3	
합 계	202	100.0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6)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창작·제작, 실연 등)

○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141명(69.8%), 보통 53명(26.2%), 중요하지 않다 8명(4.0%)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균은 3.83으로 나타남.

<표 IV-8>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3.83
중요하지 않다	8	4.0	
보통	53	26.2	
중요하다	107	53.0	
매우 중요하다	34	16.8	
합 계	202	100.0	

(7)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하다 132명(65.3%), 보통 65명(32.2%), 중요하지 않다 5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균은 3.87로 나타남.

<표 IV-9>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5	3.87
중요하지 않다	4	2.0	
보통	65	32.2	
중요하다	83	41.0	
매우 중요하다	49	24.3	
합 계	202	100.0	

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관련 부족한 정책 및 사업

○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관련 부족한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51명(25.2%),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0명(19.8%),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29명(14.4%),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명(13.4%), 예술가의 창작 활동 23명(11.4%),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과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이 각 15명(7.4%), 기타 2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부족한 정책 및 사업은 지역주민 지원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나타남.

<표 IV-10>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관련 부족한 정책 및 사업

구 분	빈도(명)	비율(%)
예술가의 창작 활동	23	11.4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15	7.4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29	14.4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51	25.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	13.4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15	7.4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0	19.8
기타	2	1.0
합 계	202	100.0

라)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51명(25.2%),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3명(21.3%),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35명(17.3%),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29명(14.4%),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이 각 17명(8.4%),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9명(4.5%), 기타 1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기타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은 지역주민 지원으로 나타남.

<표 IV-11> 문화예술 창작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구 분	빈도(명)	비율(%)
예술가의 창작 활동	17	8.4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9	4.5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35	17.3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51	25.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29	14.4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17	8.4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3	21.3
기타	1	0.5
합 계	202	100.0

마)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속 운영 희망 여부

○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속 운영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그렇다 153명(75.7%), 잘 모르겠다 41명(20.3%), 그렇지 않다 8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2>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속 운영 희망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그렇지 않다	8	4.0
그렇다	153	75.7
잘 모르겠다	41	20.3
합 계	202	100.0

마-1)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속 운영을 위한 정책

○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속 운영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62명(40.5%),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43명(28.1%), 전문인력 22명(14.4%), 문화예술 창작공간 수의 확대 14명(9.2%), 예술가의 참여 의지 12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3>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속 운영을 위한 정책

구 분	빈도(명)	비율(%)
예술가의 참여 의지	12	7.8
전문인력(문화기획자, 문화활동가 등)	22	14.4
문화예술 창작공간 수의 확대	14	9.2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예산확충, 담당인력 등)	43	28.1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62	40.5
기타	—	—
합 계	153	100.0

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바람직한 운영 주체

○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바람직한 운영 주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행정시 68명(33.6%),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61명(30.2%), 읍·면·동 주민센터 45명(22.3%), 지역의 자생단체 20명(9.9%), 예술가 개인 6명(3.0%), 기타 2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운영 주체는 각각 환경에 맞게, 모르겠음 등으로 나타남.

<표 IV-14>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운영 주체

구 분	빈도(명)	비율(%)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68	33.6
읍·면·동 주민센터	45	22.3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61	30.2
예술가 개인	6	3.0
지역의 자생단체(마을회, 청년회 등)	20	9.9
기타	2	1.0
합 계	202	100.0

사)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시 기대 사항

-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시 기대 사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참여 확대 70명(34.6%), 취미·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 48명(23.8%), 교류·소통 기회 확대 28명(13.9%),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22명(10.9%),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 18명(8.9%),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교양 향상 15명(7.4%), 기타 1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기타 기대 사항은 없음으로 나타남.

<표 IV-15>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시 기대 사항

구 분	빈도(명)	비율(%)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교양 향상	15	7.4
취미·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	48	23.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	18	8.9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참여 확대	70	34.6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22	10.9
교류·소통 기회 확대	28	13.9
기타	1	0.5
합 계	202	100.0

2) 창작공간 이용 경험

가)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험

-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이용해 본 적이 없다 119명(58.9%), 이용해 본 적이 있다 83명(41.1%) 등으로 나타남.

<표 IV-16>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험

구 분	빈도(명)	비율(%)
이용해 본 적이 있다	83	41.1
이용해 본 적이 없다	119	58.9
합 계	202	100.0

나)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이유

-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전시,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해 41명(27.7%), 축제, 경연 등 행사 참여를 위해 29명(19.6%), 주민과의 교류·소통을 위해 20명(13.5%),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정보 습득을 위해 19명(12.8%), 교육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16명(10.8%),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활동 참여를 위해 12명(8.1%), 직접 작품을 창작·제작·실연하기 위해 10명(6.8%), 예술가와의 만남을 위해 1명(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이유(복수 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시,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해	41	27.7
교육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16	10.8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정보 습득을 위해	19	12.8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활동 참여를 위해	12	8.1
직접 작품을 창작·제작·실연하기 위해	10	6.8
축제, 경연 등 행사 참여를 위해	29	19.6
예술가와의 만남을 위해	1	0.7
주민과의 교류·소통을 위해	20	13.5
기타	—	—
합 계	148	100.0

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빈도

-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회 이상 41명(49.4%), 6개월에 2~3회 25명(30.1%), 한 달에 2~3회 13명(15.7%), 1주일에 1회 이상 4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8>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빈도

구 분	빈도(명)	비율(%)
거의 매일	—	—
1주일에 1회 이상	4	4.8
한 달에 2~3회	13	15.7
6개월에 2~3회	25	30.1
1년에 1회 이상	41	49.4
합 계	83	100.0

라)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우

○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우를 살펴보면 행사 때만 일회성 관람 64명(77.1%),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주기적 이용 15명(18.1%), 창작·제작, 실연 활동 등으로 상시 이용 3명(3.6%), 기타 1명(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이용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시 방문 및 행사진행 시 사용으로 나타남.

<표 IV-19>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우

구 분	빈도(명)	비율(%)
행사 때만 일회성 관람	64	77.1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주기적 이용	15	18.1
창작·제작, 실연 활동 등으로 상시 이용	3	3.6
기타	1	1.2
합 계	83	100.0

마) 문화예술 창작공간 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작가와의 만남 등)

○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없음 154명(76.2%), 있음 48명(23.8%)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 22명(45.8%), 만족 19명(39.6%), 불만족 7명(14.6%)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25로 나타남.

<표 IV-20>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2	4.2	3.25
불만족	5	10.4	
보통	22	45.8	
만족	17	35.4	
매우 만족	2	4.2	
합 계	48	100.0	

(2)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전시, 공연 관람 등)

-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없음 142명(70.3%), 있음 60명(29.7%)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32명(53.3%), 보통 22명(36.7%), 불만족 6명(10.0%)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53으로 나타남.

<표 IV-21>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2	3.3	3.53
불만족	4	6.7	
보통	22	36.7	
만족	24	40.0	
매우 만족	8	13.3	
합 계	60	100.0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3)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없음 154명(76.2%), 있음 48명(23.8%)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 25명(52.0%), 만족 19명(39.6%), 불만족 4명(8.4%)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38로 나타남.

<표 IV-2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2	4.2	3.38
불만족	2	4.2	
보통	25	52.0	
만족	14	29.2	
매우 만족	5	10.4	
합 계	48	100.0	

(4)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창작·제작, 실연 등)

-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없음 164명(81.2%), 있음 38명(18.8%)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 20명(52.6%), 만족 14명(36.8%), 불만족 4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24로 나타남.

<표 IV-23>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2	5.3	3.24
불만족	2	5.3	
보통	20	52.6	
만족	13	34.2	
매우 만족	1	2.6	
합 계	38	100.0	

(5) 축제·행사 참여

- 축제·행사 참여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없음 130명(64.4%), 있음 72명(35.6%) 등으로 나타남.
- 축제·행사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40명(55.6%), 보통 24명(33.3%), 불만족 8명(11.1%) 등으로 나타남.
- 축제·행사 참여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53으로 나타남.

<표 IV-24> 축제·행사 참여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매우 불만족	1	1.4	3.53
불만족	7	9.7	
보통	24	33.3	
만족	33	45.9	
매우 만족	7	9.7	
합 계	72	100.0	

바)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로

-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 및 이웃의 권유 29명(34.9%), 신문·방송의 안내 광고 20명(24.1%), 문화예술 창작공간 담당자 및 관계자의 홍보 16명(19.3%), 내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11명(13.3%), 행정기관의 홍보 7명(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표 IV-25>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경로

구 분	빈도(명)	비율(%)
친구 및 이웃의 권유	29	34.9
문화예술 창작공간 담당자 및 관계자의 홍보	16	19.3
신문·방송의 안내 광고	20	24.1
행정기관의 홍보	7	8.4
내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11	13.3
기타	—	—
합 계	83	100.0

사) 문화예술 창작공간 후 경험한 변화의 정도

(1)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소양 향상

○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소양 향상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렇다와 보통이 각각 34명(41.0%), 38명(45.8%), 그렇지 않다 7명(8.4%)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소양 향상에 대한 평균은 3.40으로 나타남.

<표 IV-26>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소양 향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40
그렇지 않다	5	6.0	
보통	38	45.8	
그렇다	34	41.0	
매우 그렇다	4	4.8	
합 계	83	100.0	

(2)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

○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보통 41명(49.4%), 그렇다 31명(37.3%), 그렇지 않다 11명(13.3%) 등으로 나타남.

-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에 대한 평균은 3.33으로 나타남.

<표 IV-27>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	—	3.33
그렇지 않다	11	13.3	
보통	41	49.4	
그렇다	24	28.9	
매우 그렇다	7	8.4	
합 계	83	100.0	

(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렇다 39명(47.0%), 보통 35명(42.2%), 그렇지 않다 9명(10.8%) 등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에 대한 평균은 3.45로 나타남.

<표 IV-28>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	—	3.45
그렇지 않다	9	10.8	
보통	35	42.2	
그렇다	32	38.6	
매우 그렇다	7	8.4	
합 계	83	100.0	

(4) 창작·제작, 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

- 창작·제작, 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를 살펴보면 보통 37명(44.6%), 그렇다 27명(32.5%), 그렇지 않다 19명(22.9%) 등으로 나타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창작·제작, 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에 대한 평균은 3.11로 나타남.

<표 IV-29> 창작·제작, 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11
그렇지 않다	17	20.5	
보통	37	44.6	
그렇다	24	28.9	
매우 그렇다	3	3.6	
합 계	83	100.0	

(5) 교류·소통 능력 향상 또는 기회 확대

- 교류·소통 능력 향상 또는 기회 확대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보통 38명(45.9%), 그렇다 35명(42.1%), 그렇지 않다 10명(12.0%) 등으로 나타남.
- 교류·소통 능력 향상 또는 기회 확대에 대한 평균은 3.36으로 나타남.

<표 IV-30> 교류·소통 능력 향상 또는 기회 확대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2	2.4	3.36
그렇지 않다	8	9.6	
보통	38	45.9	
그렇다	28	33.7	
매우 그렇다	7	8.4	
합 계	83	100.0	

(6)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그렇다 44명(53.0%), 보통 33명(39.8%), 그렇지 않다 6명(7.2%) 등으로 나타남.
-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대한 평균은 3.55로 나타남.

<표 IV-31>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	—	3.55
그렇지 않다	6	7.2	
보통	33	39.8	
그렇다	36	43.4	
매우 그렇다	8	9.6	
합 계	83	100.0	

아)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78명(35.2%),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있는 줄 몰라서 68명(30.8%),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23명(10.4%),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와 너무 멀리 있어서 각각 17명(7.7%), 시설이 좋지 않아서 9명(4.1%), 기타 6명(2.7%), 운영자들이 불친절해서 3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이유는 관심 부족, 매력성 부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다양하지 않은 프로그램, 흥미 부족 등으로 나타남.

<표 IV-32>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있는 줄 몰라서	68	30.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78	35.2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17	7.7
너무 멀리 있어서	17	7.7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23	10.4
시설이 좋지 않아서	9	4.1
운영자들이 불친절해서	3	1.4
기타	6	2.7
합 계	221	100.0

자)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중심 대상

○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중심 대상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138명(68.3%), 중·장년층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27명(13.4%), 중·고등학생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14명(6.9%), 어린이 등 초등학생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13명(6.4%), 노년층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9명(4.5%), 기타 1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대상은 예·체능 전공 희망자로 나타남.

<표 IV-33> 문화예술 창작공간 프로그램 중심 대상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린이 등 초등학생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13	6.4
중·고등학생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14	6.9
중·장년층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27	13.4
노년층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9	4.5
지역 주민 대상 중심 프로그램 운영	138	68.3
기타	1	0.5
합 계	202	100.0

차)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이용 기회 제공 96명(25.0%), 도와 행정시의 예산과 인력 지원 69명(18.0%),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심 54명(14.1%),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에 편리한 접근성 49명(12.7%),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38명(9.9%), 언론·방송 등 홍보 강화 30명(7.8%),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시설 22명(5.7%),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 적극 권장 15명(3.9%), 기타 11명(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34>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복수 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심	54	14.1
도와 행정시의 예산과 인력 지원	69	18.0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시설	22	5.7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38	9.9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에 편리한 접근성	49	12.7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이용 기회 제공	96	25.0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 적극 권장	15	3.9
언론·방송 등 홍보 강화	30	7.8
기타	11	2.9
합 계	384	100.0

카) 향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의향

- 향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예 192명(95.0%), 아니오 10명(5.0%) 등으로 나타남.

<표 IV-35> 향후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의향

구 분	빈도(명)	비율(%)
예	192	95.0
아니오	10	5.0
합 계	202	100.0

다. 시사점

1) 지역 문화시설로서 창작공간의 역할 확대

- 창작공간의 의미에 대하여, ‘창작·전시·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시설’, ‘친교·교류 등 만남과 소통의 공간’,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학습 공간’이라는 응답이 ‘예술가의 작업공간’이나 ‘예술가의 거주 공간’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이는 창작공간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창작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사적 공간에서 사회적 의미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창작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도, 예술가의 창작활동(3.69),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3.60) 등 창작공간의 고유 기능보다,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3.63), 전시·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3.92),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3.79), 문화예술 창작·실현 프로그램(3.83), 축제·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3.87)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창작공간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활동, 즉 전시·공연 향유와 창작, 문화예술 교육 등의 제공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작공간의 기능과 관련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책 및 사업 내용과 창작공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복돋워야 할 정책 및 사업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도를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해 줌.

2) 행정과 주민의 협치를 통한 창작공간 운영 강조

-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속 운영에 대해, 4%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보통, 혹은 찬성을 희망하고 있어서 창작공간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창작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40.5%), 예산확충과 담당인력 등 행정의 지속적 지원(28.1%), 문화기획자 및 활동가 등의 전문인력(14.4%)

을 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창작공간의 운영에 지역사회와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인력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에 따라 창작공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시(33.6%)와 지역 문화예술단체(30.2%),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22.3%) 등을 희망하고 있어, 창작공간의 운영에서는 책임성과 전문성, 지역성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함.

3) 창작공간에 대한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공존

- 창작공간 이용 시 기대하는 것은 주로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참여(34.6%), 취미·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23.8%), 교류와 소통기회 확대(13.9%)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함.
- 창작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활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이용 경험 자체는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8.9%로 더욱 높게 나타남.
 - 이용 빈도도 6개월~1년간 1~3회에 그쳐 단발적 이용이 주를 이루고, 이용 이유 역시 전시·공연 관람과 축제·경연 등 행사 참여 등에 집중되어 있어, 행사시에 국한된 일회성 관람(77.1%)이 창작공간 이용의 일반적 행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작공간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3.53), 축제·행사 참여(3.53), 교육프로그램(3.38), 작가와의 대화 등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3.25), 창작·실현 프로그램(3.24)의 순으로 나타나서 이용 행태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해 줌.
 - 그 중 창작·실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에 비해, 주기적-상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창작·실현 프로

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4) 창작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중요성 및 지역문화 향상

- 창작공간에 대한 이용 경로로는 주로 친구 및 이웃의 권유(34.9%), 신문·방송의 안내(24.1%), 창작공간 담당자 및 관계자의 권유(19.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창작공간에 대한 홍보는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창작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간 부족(35.2%)과 함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서 라는 응답이 30.8%로 높게 나타나, 커뮤니티에 밀착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창작공간 이용에 따른 변화로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3.55),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3.45),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나 소양 향상(3.40), 교류·소통 능력의 향상(3.36),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3.33), 창작·제작·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3.1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작공간이 개인의 지식과 소양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소통 능력 등 지역문화 향상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반증함.

2. 전문가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자, 관련 분야 전문가, 공공 문화시설 담당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운영자는 주로 빈집프로젝트사업,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선정자를 중심으로 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낡고 비어있는 창고를 재활용하여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지원한 사업임.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제주시 삼도2동 구 제주대학교병원)를 위해 예술가들에게 빈 점포를 창작공간으로 임대 지원한 사업임.
- 심층면접 대상자는 창작공간 지원 대상자, 문화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 기획자, 예술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하였음.
 - 면접조사 방법 : 면접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접을 실시함.
 - 주요 질문 내용 : 창작공간 운영 목표, 운영 주체, 운영 경비 마련, 창작공간의 기능과 역할, 운영자(기획자, 예술가)의 역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정도 및 만족도 등

나. 주요 조사 결과

1) 창작공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역할 기대

-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운영자들은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지역에 문화예술의 요소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창작공간이 운영되기 전과 기획자가 들어가서 창작공간을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창작공간 운영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창작공간 운영자(또는 기획자)가 지역 주민들과 밀착되도록 노력하고, 그들을 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려고 노력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창작공간 운영자에 따라 지역과 지역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접근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사례가 있음.
- 반면 운영자의 취향에 따라 개인 창작공간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 간에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간에도 소통과 교감의 기회가 없게 되므로,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작공간 취지에 맞지 않게 됨.
- 창작공간 운영자가 단순히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제주 도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운영자(예술가, 기획자와 중복되기도 함)는 제주 도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기회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지녀야 함.

2) 창작공간 운영경비 지원 방안 모색

- 예술 장르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술가들은 창작활동 단계에서 공간 운영이나 창작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 필요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리모델링비, 문화기획자 1명 인건비 등이 지원되며, 운영자(또는 대표) 인건비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된 운영자는 이 공간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창작공간 지원사업 등 여러 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창작공간이 운영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건물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 외 공간 운영비나 창작 활동비는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결국 다양한 목적의 창작공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함.

3) 매개인력 중심의 운영 체제 유지

- 예술가와 지역 주민, 또는 예술가들 간에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이 형성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세대, 연령, 직업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서귀포문화뻗대리충전소는 운영자 겸 기획자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힘입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음.
- 문화공간 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이지만, 운영자와 기획자의 의지와 역할에 따라 공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
- 두 사례에서 보듯이 창작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때는 행정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더라도 이러한 창작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간 운영자, 예술가, 기획자 등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창작공간 운영 초기 일정부분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창작공간이 정착화된 다음, 지속적으로 창작공간 유지가 가능한 것은 기획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기획자들이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전문 기획자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기획자가 사명감을 지니기보다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관심을 둘 경우 사업 내용이 충실하지 않게 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또한 사업기간만 채우고 그만둘 경우 행정이나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는 무너지고, 기획자와 창작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이 발생함.
- 민간이든, 공공이든 창작공간의 본질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집중해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레지던스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면 그 작업과 관련하여 큐레이팅과 비평의 기회가 있어야 하고, 또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멘토와 멘티 제도 운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행정기관의 지원정책은 창작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창작공간과 예술가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매개인력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하고, 창작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한 예술가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획자가 배치되어야 함.
- 창작공간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예술가들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면 전문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함.

4) 예술가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작공간의 역할 기대

-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거점 역할이나, 특정지역의 거점 공간의 역할이 필요함.
- 지역 주민들이 외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원 기구가 필요하므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창작공간이 운영되어야 함.
-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지역마다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창작공간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음.

- 또한 창작공간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 이후의 전시활동, 창작활동을 통한 오픈 스튜디오의 진행, 창작된 작품들의 수장고 기능 확보, 창작공간이 있는 지역과 교류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함.
- 창작공간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도와 관심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도민들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보고,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지역에 창작공간이 설치되고, 지역 주민들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에서 참여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함.
 - 지역 주민들의 세대, 성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운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자, 예술가 등 전문인력의 개방적인 역할이 중요함.
 - 또한 창작공간이 있는 지역 주민은 물론 참여자의 폭을 좀더 확대하여 인접지역 주민(어린이, 노년층 등)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창작공간 운영 방향이 중요함.
- 소위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창작공간이 조성되고, 운영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운영자(기획자 포함)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창작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은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얻게 되고, 해당 창작공간의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됨.
- 지역 주민들이 창작공간 이용에 소극적이라도 관찰자로서 예술가들을 격려해 주고,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보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므로, 이런 점에서 창작공간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과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창작공간이 소박하고 생활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길 기대하기도 함.

5) 예술가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창작공간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관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참여자로 유인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인내력과 사명감이 있어야 함.
 - 이는 창작공간 운영자의 몫이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함.
- 창작공간과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데, 지역 주민과 교류를 해야 하는 지원사업인 경우 창작공간 운영자(예술가 포함)들이 지역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할 경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예술가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중심으로 창작공간을 운영할 때는 지역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 예술가들이 단순히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머무르거나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시선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예술인 입주점포 작가들은 개별적으로 입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과 지향점을 통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입주 작가 중심의 협의체가 조직되어 있어서 예술가는 물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6) 예술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창작공간 운영

- 창작공간(스튜디오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소별로 특장화하고, 장르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기관에서 레지던스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률적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시각예술 분야를 선정하는 기관, 공연예술 분야를 선정하는 기관 등 특색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과 같이 집단적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초기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협의한 후에 목적에 맞는 창작공간벨트를 조성해야 함.

- 이와 같이 운영할 경우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창작공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을 선정하면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으로 입주한 작가들 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향유가 가능한 예술분야가 있고, 개인 작업만으로 상품화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분야가 있음.

- 예를 들면 예술가의 창작 기획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창작해야 하는 작가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면 예술가와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임.

- 행정의 지원을 받은 창작공간이라고는 해도 입주 작가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고, 작가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예술가에 따라 독자적으로 창작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입주 작가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다. 조사 결과 시사점

- 제주지역의 창작공간은 운영 주체와 사업 목적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

IV. 지역 주민의 창작공간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창작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예술가와 교류할 수 있는 매개 공간이 되어야 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의 취지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 운영 자체는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 교류 활동에 역점을 두었음.
 -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가들과 협업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음.
-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은 상가에 예술가들이 입주한 경우에 해당됨.
 - 1기에는 음악 분야 입주 작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창작활동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있었음.
- 예술인 입주점포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상가에 입주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조용한 거주 환경을 원했으나 그것을 보장받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했음.
 - 이는 예술가들도 지역의 성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한 결과이며, 행정에서는 장르를 고려하지 못하고 선정한 결과로 보임.
- 향후 예술가들이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공모하게 되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 만족도 정도, 기획자의 의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따라서 창작공간 운영자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창작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운영자와 지역 주민 간에 원활한 교류 기회도 놓치게 됨.
- 창작공간은 운영자의 철학과 기획자의 안목에 따라 목표 달성의 성

패가 달려 있음. 즉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교류에만 집착할 경우 공간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도 있음.

-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이 있는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매개인력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 주민들은 예술가가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그와 같은 활동을 요구하는 등 창작공간이 지역 문화센터와 같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부분은 지역 주민과 운영자의 입장차일 수도 있으므로, 두 집단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지혜가 필요함.
- 창작활동에 참여해 본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장르를 지정하여 창작공간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창작공간을 방문하여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를 제안하기도 함.
- 이와 같이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 지역을 통해 창작공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어 창작공간 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V.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창작스튜디오는 미술관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여건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제주지역의 창작공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빈집프로젝트사업과 같이 지역재생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창작공간이면서 문화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문화센터와 같은 기능도 요구하고 있음.
- 창작공간의 성격상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예술활동에 중점을 둔 창작공간이면 예술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는 물론 도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필요한 창작공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전문 기획자 제도 운영 활성화

- 일반적으로 국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작공간이나 문화예술의 거리, 예술시장 등을 보면 기획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음을 알 수 있음.
 - 기획자는 입주 작가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교량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술 프로그램,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획과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나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전문 기획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므로, 예술가와 운영자, 기획자가 공공성을 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명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획자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이때 전문 기획자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공공예술 등 각각의 예술 장르에 합당해야 하므로 각 장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야 함.
- 제주지역에서 창작공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중섭미술관, 현대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청년대상), 예술공간 이아 등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주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외에 다른 창작공간에서는 공동의 발표 기회를 얻게 되더라도 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획자가 있어야 함.
- 반면 창작공간 지원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문 기획자의 활동이 미약한 편이므로 창작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물론 기획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전문 기획자는 창작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기획하고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그 공간이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한편 기획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기획자의 역량에 따라 예술가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할 때보다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음.
- 따라서 전문 기획자와 예술가의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예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주 문화정책의 과제에 해당됨.

2. 예술활동 관련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

- 예술가가 창작공간의 운영자 겸 기획자 역할을 할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다 보면 개인의 창작 활동은 포기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창작공간 지원사업인 경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획자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가능한데, 창작공간 대표가 직접 기획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기획자나 예술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여야 지속성을 띠면서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도 양질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 지원 사업비에는 기획자와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창작공간은 한 지역에서 최소한 3년 이상 활동해야 지역 주민들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기획자)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이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을 뜻하므로, 특정지역에 있는 창작공간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3.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지정

- 문화예술의 거리(제주시 삼도2동)는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많지 않아서 입주 작가들이 지역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향후 예술인 입주점포사업 등과 같이 집적화된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는 전문 기획자와 같은 총괄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특정 창작공간에 정보 교류센터 역할을 부여하여 예술가와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함.
-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창작공간 중에 한 곳을 지정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 공간의 역할을 부여하면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알려 줄 수 있고, 방문객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지금은 이와 같은 서비스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입주 작가와 방문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런 관점에서 현대미술관에서는 저지예술인마을의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하여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행정기관, 예술가와 도민 등 여러 집단의 매개센터가 되도록 운영된다면 서부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폭제가 될 것임.

4. 제주지역의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

- 제주지역에 있는 마을 체육관, 학교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있음.
- 문화(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유휴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체육관이 운영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 청년, 도민 등 다양한 공연 장르의 예술가들이(아마추어 포함)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함.

5. 공공재가 투입된 창작공간 운영의 지속화 방안 마련

- 창작공간이 들어서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예술 공간을 재화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기도 함.
- 창작공간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술가와 도민이 서로 이해하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은 5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는 운영자 개인이 자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 사업은 빈 집 임대료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공모사업이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창작공간 운영자의 몫

이므로, 이와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빈집프로젝트사업이나 예술인 입주점포사업(제주시 삼도2동)은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는 초기 단계에 해당되므로, 5년이라는 지원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이 공간 운영자들이 지정된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다만 창작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
 - 일부에서는 창작공간 지원사업(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에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동안만 활동하고,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음.
- 따라서 창작공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 교류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빈집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보면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소비를 위해서 빈 집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예술가들이 그곳을 생산형 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마을에서 보면 소비형 공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임.
- 이는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건물 보수 등 환경 정비에 소홀히 하고, 임시 거처지로 여기기 때문에 입주 작가들이 떠나고 나면 그 창작공간은 마을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빈집프로젝트사업이 끝나고 후속 관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예술가들이 소비하는 공간이 되어 버릴 수 있음.
- 따라서 창작공간 입주 작가들은 자신들이 그 공간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레지던스사업의 유형별 지원제도 운영

- 일반적으로 레지던스사업을 진행할 때 예술가의 연령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도 있으므로, 제주지역에 있는 창작공간(창작센터 포함)들이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함.
- 제주지역에서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술가들의 장르, 입주 기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창작공간 지원 기관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고, 입주 작가의 예술 장르를 조정하여 선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함.
 -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경우, 창작활동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을 구별하여 선정하면 예술가와 도민들의 기대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창작공간의 위치에 따라 입주 작가의 대상(신진작가, 중견작가 등)을 고려하여 입주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지역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의사가 있는 예술가와 조용히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예술가를 구분하여 유형에 맞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레지던스사업인 경우 입주 작가의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있는데 가능하면 입주 기간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 레지던스사업이 예술가들의 창작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기본 취지는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유형별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지원사업에 공모할 때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고, 해당 공간에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하고, 사업에 선정된 이후의 이행 조건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계획에 맞게 지원하므로, 가능한 한 예술가의 준수사항은 간단해야 함.

7. 창작공간 운영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창작공간별로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면 예술가는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커뮤니티공간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이 가능함.
- 공공성을 띤 예술 창작공간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입주 작가들과 행정기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중간관리자로 코디네이터를 두고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문제점이나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고 좀더 긍정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예술가들은 사업 계획서 작성, 집행 과정 및 결과 작성, 예술가 또는 지역 주민들과 활발한 교류 시도 등 창작 이외의 외적 활동 참여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 또한 예술 프로그램에 따라 기획자 간에도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획자 참여가 필수 요소이므로 홍보 등 창작공간 활동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 전반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창작공간 운영이 활성화되려면 운영자, 기획자가 다른 지역이나 여러 단체들과 문화예술 측면의 교류가 활발해야 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매개인력)가 양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이 있는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려면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매개인력인 코디네이터들이 관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최근 들어 매개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기회 확대가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매개인력에게는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함.

8. 예술가의 지역 정착 강요정책 추진

-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예술가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주거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을 건설할 경우 예술가가 해당 주거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주거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예술가들이 강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이에 더하여 입주 작가들이 입주한 주거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허용해 줌.
-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예술이 생활에 스며들고, 그 결과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함.

참고문헌

- 데이빗 팬톤(2016), 『예술가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제8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집』.
- 문순덕 외(2016),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9),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예술인 실태 조사』.
- 미술인회의/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추진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2006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성과 보고서」
- 박신의(2013),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구도와 타당성」, 『2013 문화정책 논총』, 제27집 2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박지은(2016), 『예술가의 창작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제8회 서울시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집』.
- 서울문화재단(2010), 「전국 창작 공간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 서울문화재단(2013), 『서울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의 전략』.
- 서정민(2012), 『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 양건열(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제주문화예술재단(2017), 「내부자료」.
- 제주시 문화예술과(2017), 「내부자료」.
- 제주시 우도면사무소(2017),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 보고서 1』.
- 제주현대미술관(2017), 「내부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문화예술정책 현황 진단 연구』.

김연진(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Bridges(1958), Romanes lecture.

William J. Baumol and William G. Bowen(1966), Baumol's cost disease.

문화공간 양 홈페이지(<http://www.culturespaceyang.com/>)

서귀포 문화빔데리충전소 홈페이지(<http://cafe.daum.net/jejuartstation>)

예술공간 이아 홈페이지(<http://artspaceiaa.kr/main.do>)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http://culture.seogwipo.go.kr/jslee/>)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http://www.jfac.kr/>)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http://www.jfac.kr/>)

Abstract

Status of Support of Spaces for Cultural and Art Creation and Measures to Promote Them

Moon Soon Deok & Kim Youn Jin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programs to provide space for cultural and artistic creation such as Empty House Project, Artist Shop Support Project, creation space provid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creation space provided by villages and individual operated with public subsidies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ity administrations. It also surveyed the residents of the areas where these space are located on roles of artists and satisfaction with culture and art and then presented the suggestions to promote the spaces for creation.

To promote the creation spaces several factors. They include the professional planners to operate the creation spaces,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support art programs, base center to operate creation spaces, operation of public facilities for art activities, a continuous plan to operate the creation spaces supported with public goods, and the support specific to each type of residence programs.

Keywords: Empty House Project, residence, creation space, creation studio, artist sho

<부록> 설문지

제주지역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행정에서 추진한 창작공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및 빈집프로젝트사업 추진 공간)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법 등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이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 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제주연구원장 강 기 춘

연구책임 : 문 순 덕 박사(☎ 726-7407, FAX 751-2168)

※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창작지원센터, 창작스튜디오라고도 함.

☞ 예시 : 아트창고, 꿈꾸는고물상, 재주도좋아, 가시리 창작지원센터,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삼도2동 예술 창작공간, 서귀포문화빔데리충전소, 문화공간 양 등

1. 창작공간 일반 인식

1.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어떤 곳(의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술가의 작업 공간
- ② 예술가의 거주 공간
- ③ 창작·전시·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시설
- ④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학습 공간
- ⑤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활동 공간
- ⑥ 친교·교류 등 만남과 소통의 공간
- ⑦ 기타(_____)

2.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각 기능의 중요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예술가의 창작 활동	①	②	③	④	⑤
2)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작가와의 만남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전시, 공연 관람 등)	①	②	③	④	⑤
5)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창작·제작, 실연 등)	①	②	③	④	⑤
7)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8)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기능 가운데 **가장 부족한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예술가의 창작 활동
- ②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 ③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작가와의 만남, 오픈스튜디오 등)
- ④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예: 공연, 전시 관람 등)
- 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⑥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예: 창작·제작, 실연 등)

⑦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⑧ 기타(_____)

4.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기능 가운데 **가장 활성화**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② 예술가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③ 문화예술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작가와의 만남, 오픈스튜디오 등)

④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 (예: 공연, 전시 관람 등)

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 (예: 창작·제작, 실연 등)

⑦ 축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⑧ 기타(_____)

5.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5-1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

5-1. 그렇다면,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술가의 참여 의지

② 전문인력(문화기획자, 문화활동가 등)

③ 문화예술 창작공간 수의 확대

④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예산확충, 담당인력 등)

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⑥ 기타(_____)

6.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누가 운영**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② 읍·면·동 주민센터

③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④ 예술가 개인

⑤ 지역의 자생단체(예 : 마을회, 청년회 등)

⑥ 기타(_____)

7.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할 경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한 가지**만 선택)

- 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고양 향상
- ② 취미·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
- ③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
- ④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참여 확대
- ⑤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⑥ 교류·소통 기회 확대
- ⑦ 기타(_____)

II. 창작공간 이용 경험

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거주지역(읍·면·동) 내에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이용해 본 적이 있다(☞ 9번 항목으로 계속)
- ② 이용해 본 적이 없다(☞ 15번 항목으로 이동)

9. 귀하가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전시,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해
- ② 교육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 ③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정보 습득을 위해
- ④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활동 참여를 위해
- ⑤ 직접 작품을 창작·제작·실연하기 위해
- ⑥ 축제, 경연 등 행사 참여를 위해
- ⑦ 예술가와의 만남을 위해
- ⑧ 주민과의 교류·소통을 위해
- ⑨ 기타(_____)

10.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1주일에 1회 이상 ③ 한 달에 2 ~ 3회
- ④ 6개월에 2 ~ 3회 ⑤ 1년 1회 이상

11.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어떤 경우에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행사 때만 일회성 관람 ②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주기적 이용
 ③ 창작·제작, (공연)실연 활동 등으로 상시 이용
 ④ 기타(_____)

12. 귀하가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경험한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참여 여부	프로그램 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문화예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작가와의 만남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욕구 유발 프로그램 운영(전시, 공연 관람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창작 실현 프로그램 운영(창작·제작, 실연 등)	①	②	③	④	⑤
	축제, 행사 참여	①	②	③	④	⑤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어떤 경로로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친구 및 이웃의 권유
 ② 문화예술 창작공간 담당자 및 관계자의 홍보
 ③ 신문·방송의 안내 광고
 ④ 행정기관의 홍보
 ⑤ 내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⑥ 기타(_____)

14. 귀하가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 후,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가 경험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소양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취미·동호회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 증가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 향상	①	②	③	④	⑤
4) 창작·제작, 실연 등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증가	①	②	③	④	⑤
5) 교류·소통 능력 향상 또는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①	②	③	④	⑤
7)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15. (☞ 8번 항목 ②번 응답자만 응답)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이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있는 줄을 몰라서
- ②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 ④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너무 멀리 있어서
- 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서
- ⑥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이 좋지 않아서
- ⑦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운영자들이 불친절해서
- ⑧ 기타(_____)

16.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십니까?

- ① 어린이 등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②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③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④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⑤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 ⑥ 기타(_____)

17. 귀하는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선택)

- ①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심
- ② 도와 행정시의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
- ③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시설
- ④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 ⑤ 문화예술 창작공간 이용에 편리한 접근성
- ⑥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이용 기회 제공
- ⑦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 적극 권장
- ⑧ 언론·방송 등 홍보 강화
- ⑨ 지역 거주 예술가들의 이용 편의 제공

18. 귀하는 앞으로 거주지역(읍·면·동)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이용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Ⅲ. 인구학적 특성

1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0.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2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제주시 동(洞)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洞)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연구진

연구책임 문순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본연구 2017-10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63147 제주시 아연로 253 (오라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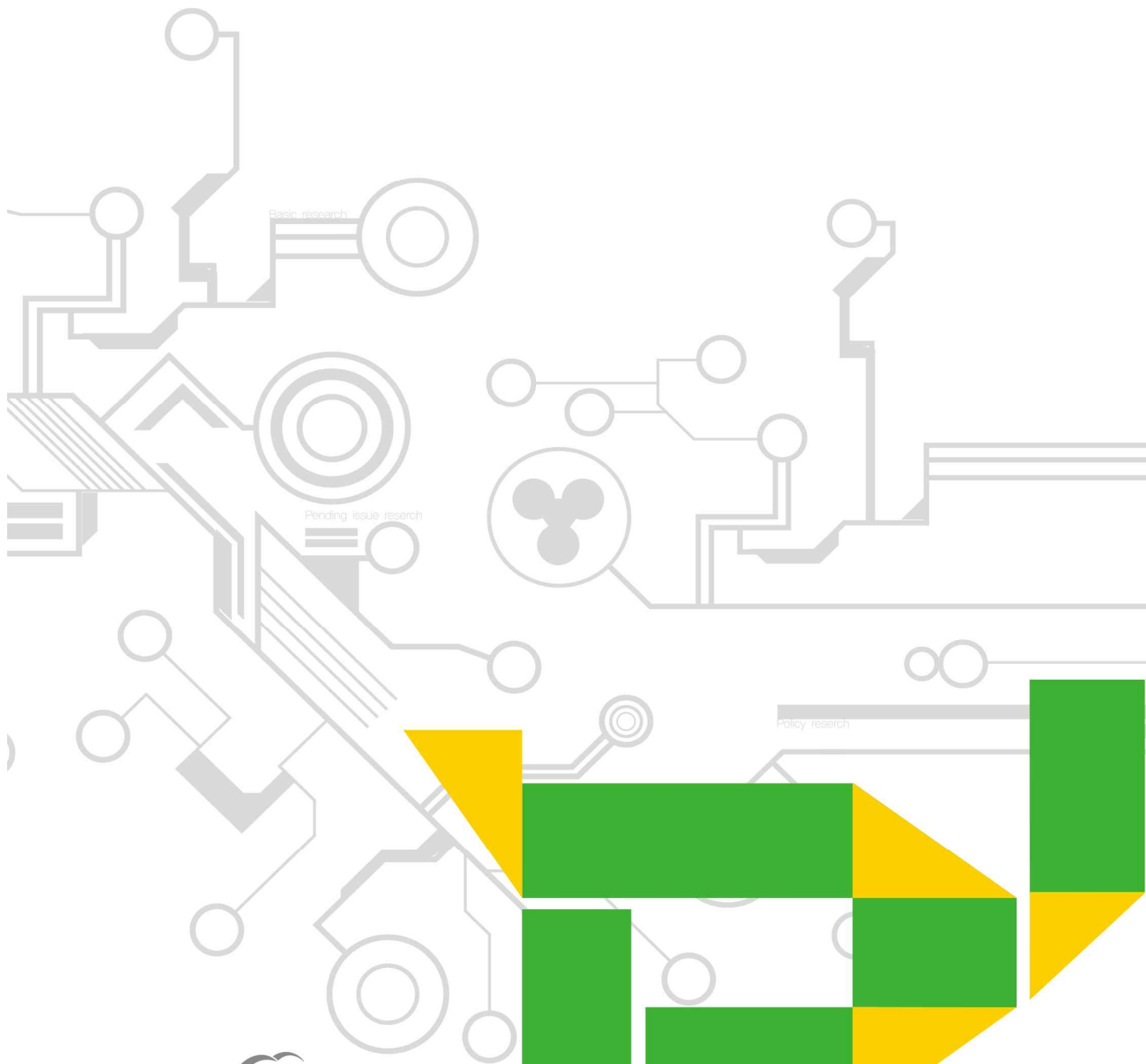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ri.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

ISBN : 978-89-6010-575-1 9332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입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Tel.064-726-0500 Fax.064-751-2168
www.jri.re.kr

비매품/무료



9 788960 105751
ISBN 978-89-6010-575-1